



대전 · 충청 · 세종 “내년 대선, 진보진영이 정권 교체”

<리얼미터 조사> 결과 정권교체 65.1% vs 정권연장 11.0%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진영으로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보수진영이 정권을 계속 연장할 것이라는 응답은 10명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전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정권 교체(또는 연장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진보진영으로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응답이 65.1%로, '보수진영이 정권을 연장할 것'이라는 응답(11.0%)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3.9%.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지지정당, 이념성향에서 '진보진영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진보진영 정권교체 83.1% vs 보수진영 정권연장 11.0%에서 80% 이상이 '진보진영 정권교체'를 전망했고, 이어 경기·인천(69.4% vs 8.9%), 대전·충청·세종(68.4% vs 7.3%), 서울(62.7% vs 13.5%), 대구·경북(50.2%, 13.6%), 부산·경남·울산(50.7%, 10.4%) 순으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진보진영 정권교체 75.9% vs 보수진영 정권연장 8.6%, 30대(75.2% vs 26%), 20대(74.7% vs 08%) 등 40대 이하에서 진보진영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압도적으로 높게 점쳤고, 50대(67.1% vs 16.5%)에서도 대다수가 정권교체를 전망했다. 60대 이상(진보진영 정권교체 38.8% vs 보수진영 정권유지 22.7%)에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 응답의 격차가 크지 않지만 오차범위 밖에서 진보진영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진보진영 정권교체 86.8% vs 보수진영 정권유지 2.0%)과 국민의당 지지층(76.4% vs 3.9%), 무당층(40.5% vs 4.9%)에서는 '진보진영 정권교체'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

(진보진영 정권교체 24.7% vs 보수진영 정권유지 43.6%)에서는 보수진영이 정권을 계속 연장할 것으로 보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진보진영 정권교체 91.6% vs 보수진영 정권연장 3.1%)에서는 진보진영이 정권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90% 이상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중도층(78.4%

vs 5.9%)에서도 '진보진영 정권교체'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보수층(진보진영 정권교체 38.2% vs 보수진영 정권연장 37.2%)에서는 두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2월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앱(39%, 전화면접(20%), 무선(26%), 유선(15%)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선전화(85%)와 유선전화(15%) 병행 임의스마트폰 알림(RDSP, random digit smartphone-pushing) 및 임의전화 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7.9%(총 통화 6498명 중 500명 응답 완료)를 기록했다. 통계보정은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이정복기자



당진시의회 편명희 의원 당진평수호 파켓시위. 당진시의회 편명희 의원은 지난 23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당진평택항일원 당진시 관할 당위성 호소를 위한 파켓시위 활동을 전개했다.

충남 청양~홍성간 4차로 신설도로 개통

오늘 오후 3시부터... 운행시간 단축 · 교통불편 해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환)은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서 홍성군 홍성읍을 잇는 국도29호선 청양~홍성(1·2공구) 도로건설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2월 26일 오후 3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1월 착공한 이 도로는 9년여의 공사기간 동안 총사업비 2344억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23.9km, 4차로로 건설되었다.

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짐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토정 관계자는 “장기간의 도로공사에 따른 불편함을 참고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AI 방역 구멍 없어야... 책임감 갖고 총력”

황관한대행 “방역현장 점검 · 현장문제 즉시 해결 등 조치”

황관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지금까지 만에 하나 구멍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구멍이 없게 하겠다는 각오로, 모두가 AI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황관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일일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 두 군데 주의를 다하지 않는 구멍이 생기면 이것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하고 철저한 방역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우선 AI 확산 방지에 시급한 과제인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 강화와 함께 오염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예찰과 철저한 방역에 힘써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황관한대행은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이동 금지 등 여러 조치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점검해서 보완이 필요한 조치들을 즉시 마련·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염원인 철새가 추가 도래할 예정이고 내년 3월까지 국내에 머물러 있을 전망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AI의 추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꼼꼼한 예찰과 함께 철새도래지 출입제한과 주변농장 소독 등 사전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러 황관한대행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농식품부 장관은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업체제를 즉시 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범정부적으로, 범사회적으로 AI 종식을 위한 노력에 같이 힘을 보태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충남 인삼 안전성 ‘이상 무’

잔류농약 · 함량 · 위생 등 안전성 · 규격기준 확인결과

충남도가 국내 유통되고 있는 인삼류 98점을 수거해 잔류농약, 함량, 위생 등 안전성 및 규격기준을 확인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거검사는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9대 핵심과제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수삼 등 인삼류 98점을 수거해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금산 인삼광장 부근 인삼류 취급 도·소매점 900곳에서 수거한 것으로, 품목별로는 수삼 6건, △당절임 및 액상차 등 일반식품 54건, △홍삼농축액,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 38건이다.

검사 결과 카드늄, 타르색소, 대장균군, 세균수, 보존료계 검출된 제품이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삼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하며, 인삼류 검사는 제조업체나 수집자가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인삼산업법에서 정한 시설 및 인

도 관계자는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전국인삼의 70%가 거래되는 금산인삼시장이 이용 농가 및 도·소매상인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체 품질관리를 유도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충남인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충남농협 임직원 AI 살처분 및 방역초소 인력지원.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지난 24일 중앙본부, 충남지역본부 그리고 천안축협 임직원 100여명을 동원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천안시 성남면 기금능기를 찾아 살처분 작업현장 인력지원을 펼치고 있다.

행복도시 세종

내일을 향한 우리 모두의 꿈을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성공투자의 중심지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

- 1인당 공평·신뢰할 수 있는 1인당 GDP
-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
-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
-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
-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

인구증가를 전국 1위!

2014년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

2015년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

2016년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

2017년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

야권잠룡 김부겸 대전 잇따라 방문

“개헌에 앞장서겠다”... 인지도 높이기에 적극 나서 주목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사진> 의원이 최근 대전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인지도 높이기에 적극 나서 주목된다.

특히 김 의원은 범야권을 중심으로 공동 개헌을 이끌어 내고자 하고 있어 그의 향후 정치행보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11월 24일 대전대 특강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

국의 미래-불안과 분노의 시대를 넘어 공존의 공화국으로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촛불에서 드러난 민심은 단순하게 대통령 한 사람의 기취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록 될 것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 없이 대한민국이 어쩔 수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대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헌론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 의원은 “야권 3당이 공동개헌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

당내에서도 개헌토론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한민국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야권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부터 국회 개헌특위가 운영되는데,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거나 정파적 이유로 공전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개헌특위를 활발하게 운영해 진지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는 또 “세종시에는 국회 자체가 옮겨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오대 이전문제는 개헌 이후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반 총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고, 이는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어우러진 것으로 풀이된다”며 “귀국 후 어떤 형태든 정치에 몸을 던지겠다는 의지만 내놓은 상황이라서 예단할 수 없지만 김창국을 먼저 마신다든가, 지나치게 견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근 반 문재인 연대 제안에 대해서는 “대의적 명분이 약하고 후보들간의 연대 또한 구시대 정치를 답습하는 것인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정복기자



유성구의회, '희망 2017 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유성구의회(의장민태원)의원들은 22일 유성구청 대강당에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 주관하는 희망2017나눔캠페인 순회 모금 행사에 동참해 이웃사랑의 온정을 나눴다.

대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위원장 정기현 의원, 부위원장 박상숙 의원 선임”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경훈)는 23일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기현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당)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난 16일에 구성된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정기현 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당) 부

위원장은 ▲박상숙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위원으로는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 ▲박정원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 ▲조원희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 ▲박희진 의원(대덕구1, 새누리당) ▲최선희 의원(비례, 새누리당)이 참여해 총 7명

으로 특위가 구성됐다.

정기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장기화 되면서 청년실업과 빈곤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년문제에 모든 세대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인 만큼, 우리 의회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시의 청년대책 사업은 예산도 적고 사업 성과도 제한적이어서 정책 효과가 미흡했다”며, “청년발전 특별위원회가 대전형 청년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제2차 회의는 제229회 임시회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반기문 측 “23만弗 의혹 보도 허위·사과 요구할 것”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은 24일(현지시간) 박연차 전 대공실업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 “완전히 근거없는 허위”라며 시사저널의 사과와 기사 취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스티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밤 이메일로 한국 특파원들에게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두자릭 대변인은 “반 총장에 대한 시사저널의 보도는 완전히 근거 없는 허위(completely false and groundless)”라면서 “시사저널 편집장에게 공문을 보내 사과와 기사 취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사저널은 박 회장과 가까운 지인을 비롯, 복수의 익명 관계자 증언이라며 반 총장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당사자인 박 전 회장에서부터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3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시사저널은 반 총장이 외교부장관이던 2005년 5월 방한한 응우옌 지 니엔 베트남 외교장관 일행을 환영하기 위해 주최했던 한남동 공관만찬 자리에서 주한 베트남 명예총영사 자격으로 참석학 박 전 회장이 20만 달러를 반 총장에게 줬고, 2007년 초 반 총장 취임 후 뉴욕에서 ‘사무총장 취임 축하 선물로 3만 달러가 건네졌다고 보도했다.

김정환기자

박범계 의원, NGO 선정한 2016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지역민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 위해 계속 노력 할 것”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사진)이 2016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돼 기쁘게 생각하며, 늘 의정활동을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지역구민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

실체를 파헤치고,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법원의 책임 있는 영장발부를 주문하고,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사표처리 등으로 사실상 행해화된 제도의 취지와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돼 기쁘게 생각하며, 늘 의정활동을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지역구민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

는 이어 “제 의정활동의 모토인 ‘정의’와 ‘공평’이 구현되는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민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모니터원 및 각 분야 전문가 각각 약 1,000명으로 구성된 ‘국감NGO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전 과정을 온·오프라인으로 종합 검토하여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올해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현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당진시의회, 이재광 의원 의정 활동 빛났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수상



당진시의회 이재광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우수의회 활동 공로 부문에 수상했다.

이 의원은 열정적인 대민봉사로 분석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농식품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가격이 지속 상승할 경우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방안도 마련해 대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수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 재부 차관보,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TF를 구성해서 수급대책 이행, 계란 수입지원, 계란 수입 가능성 국내가격 검토, 사재기 감시·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김정환기자

정신으로 의정의 신뢰성과 시민의 권리보호에 헌신하고 소통중심과 현장중심을 바탕으로 선진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열정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조직위원회는 2016년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봉사와 지역발전 활동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엄정한 심사를 거쳐 매년 각계명사들의 그 공로를 치하 표창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철회 청원’ 소개

여기구의원 “더 이상의 화력발전소 건설은 안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

여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시)은 지난 19일 당진시민 1,011인(이하, 청원인)이 청원한 ‘당진에코파워 건설 관련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철회’의 건을 국회에 소개했다.

이 청원은 국회에 제출된 다음날인 20일 소관 상임위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에 여기구의원인 국회에 소개한 청원에서 청원인들은 “현재 전국 53기 화력발전소 중 당진에는 10기가 설치되어 8기는 가동 중이며, 2기는 올해 준공되어 가동 준비 중에 있다”며 “수도권의 전기 공급을 위해 당진지역이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냐는 반감이 지역주민, 시의회 등에서 점차

표출되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의 화력발전소 건설은 안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기구의원들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에코파워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여부를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구 의원은 “주민투표와 국회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산업부의 일방적인 실시계획 승

인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구 의원의 ‘당진에코파워 건설 관련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철회’ 청원 소식에 석문면개발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여기구 의원의 승인철회 국회청원 소개는 주민공감대 형성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지난번 당진시 석문면면 8000명 중 2300명의 당진에코파워 사업동의와 조속한 건설 요청서명은 의문하고, 당진 시민 1011명의 청원이 마저 당진시 전체의견인 양 국회에 소개한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정부부처, 내년 1월 4~11일 신년 업무보고

정부가 내년 1월 4일부터 11일까지 2017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정부업무보고 일정을 발표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은 장관급 22개, 차관급 5개 등 총 27개이다.

업무보고는 안보와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의 안정적 운영, 주요 정책과제의 성공적 마무리,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5개 분야는 ▲군건한 안보 ▲튼튼한 경제 ▲미래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및 민생안정 ▲국민안전 및 법질서 등이다.

첫 업무보고는 4일에 개최되며 ‘군건한안보’를 주제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보건처 등 4개 기관이 참여한다.

김태선기자

계란수입 관세 일시면제... 사재기 의혹 조사

수입 운송비 지원·가격 지속 상승엔 정부 직접 수입 검토

고령 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가공 및 신선 계란 수입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입각에서 제기된 사재기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계란 가격상승으로 가공용 계란의 주요 수요처인 제과·제빵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인 만큼 난백·난황·전란 등 주요 계란 가공품 수입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제과·제빵업체의 국내산 계란 수요 상당 부분이 수입되는 계란가공품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계란 공급 감소가 지속되고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에 대비해 국내 가격과 연동한 신선란 수입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역시 할당관세(27%→0%)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산 신선란 소매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해 국내 계란가격이 과도하게 높아

지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계란 사재기 의혹과 관련, 관계기관 합동으로 계란 유통업체들의 재고물량과 위생안전상태 점검 등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합동점검 결과 사재기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지도 또는 권고 등을 통해 투명한 시장질서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산란계 살처분 상황과 계란 수급현황을 주간 단위

로 분석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농식품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가격이 지속 상승할 경우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방안도 마련해 대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수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 재부 차관보,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TF를 구성해서 수급대책 이행, 계란 수입지원, 계란 수입 가능성 국내가격 검토, 사재기 감시·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김정환기자

아산시공무원노조, 겨울침구 배달로 이웃사랑 실천

연말연시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의 봉사 실시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태진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2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의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원들이 아산시 관내의 어

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11가구를 방문하여 겨울침구를 직접 전달하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말동무도 해드리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양태진 위원장은 “이번 사랑나눔 봉사활동의 성공은 올해 영하 날씨를 통해 아산시청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한 것이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 소박한 선물에도 연신 감사 인사를 되뇌이는 어르신들 모습에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함에 미안함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아산시공무원노조가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창의적 사고능력 갖춘 인재양성”

대전대학교

현재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며 대학만의 고유한 철학을 만들어 가고 있는 대전대학교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전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성장해왔다. 지난 1980년 대전 유일의 순수 민간사학으로 출발한 이래 남다른 사고와 열정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이루어낸 대전대학교는 튼튼한 기본과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대학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대학의 교육브랜드인 V-PLAN을 바탕으로 대학교육 과정 및 지원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성화를 추진함으로써 '3S 특성을 갖춘 교양 있는 창의적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 3S란, 자기 주도적 주체성(Subjectivity), 디자인적 사고에 기초한 포괄적 지성(Soft-Power), 실용적 전문역량(Specialty)을 뜻하며 이를 위해 기본에 충실한 교육과 특별한 경험을 더하는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남다른 사고와 열정으로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는 창조적 도전정신은 학부 중심의 해화 리버럴아츠 교육을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을 통한 다양성과 사회성을 배우는 레지던셜 칼리지와 산학협력에 따른 현장교육까지 교육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성장해 왔다. <편집자 주>



■ 정부 재정지원 사업 3개 부문 선정

지난 36년간 끊임없는 창조적 도전을 통하여 재정적 인프라를 구축해 온 대전대학교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14년 대전 지역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LINC(산학선도대학) 육성사업, ACE(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CK-1(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 3개 부문에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이에 대학의 제일 목표인 '잘 가르치는 대학', '잘 지도하는 대학',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의 명성을 얻은 대전대학교는 향후 최대 5년간 약 260억 원의 지원을 통해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CK-1과 ACE사업에 재선정되며 학생 중심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 취업률 703%, 대전·충청 1위/전국 2위

대전대학교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취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월 교육부가 대학 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2014년 대학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제DB 연계 취업현황'에 따르면 나 그룹(졸업생 수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서 703%를 기록하며 전국 2위, 대전·충청권 1위에 올랐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취업경력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재학생들이 함께 동참한 결과물이다.

취·창업역량개발원에서는 재학생들의 성공

적인 취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성공취업 전략과 여대생 커리어 개발 등과 같은 취업교과목을 운영하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면접역량강화 캠프와 성공취업 캠프 등을 통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아울러 엘리트 취업코칭, 취업 및 창업동아리 지원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맞춤형 취업설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전대가 취업률 703%를 기록하며 대전·충청권 1위, 전국 2위에 오를 수 있었던 밑거름에는 특별한 산학협력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대전대는 졸업생들이 더 많은 기업과 본인이 요구하는 분야에 취직이 가능하도록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추어 필요한 현장실무 교육을 강화하였다.

나아가 '새빛 LINC사업단'의 운영을 통해 한방바이오와 ICT, 문화융합비즈니스 등 3대 특성화 분야를 주축으로 한 'ALL-LINC 산학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가족회사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현재 1,228개의 가족회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기업 간 유기적인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혁신적 교양교육을 위한 해화 리버럴 아츠 칼리지

대전대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는다. 이를 발판 삼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또 다른 콘텐트인 '해화



레지던셜 칼리지'의 구축으로 차별화를 이루어 내고 있다.

리버럴 아츠 교육은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의 기본학문을 균형 있게 익히고, 이를 전공과 융합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력과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다양한 영역의 기초학문을 두루 탐구하는 교육 과정을 위하여 7개 학과로 구성된 해화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단과대학으로 개편하였으며 리버럴 아츠 교육의 성취도 극대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레지던셜 칼리지는 선진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도입·접목하여 실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방과 후 공동생활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개별적인 맞춤형 자기개발도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제5생활관을 준공하는 2018학년도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더욱 확대되어 실시하게 된다.

이처럼 융·복합형 교육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리버럴 아츠 교육은 '더 넓은 자유, 더 깊은 사고, 더 높은 지성'이라는 비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인 창의적 인재 육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 신설학과

대전대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는다. 이를 발판 삼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또 다른 콘텐트인 '해화

대전대는 CK-1 사업을 통해 지난 2014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전문 인재 양성 사업'과 '국가안전방재 전문인력 양성 사업' 2개 부문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국가안전방재사업단에서는 '국가안전융합학부'를 새롭게 신설하며 융합적 지식인의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학년도 첫 신입생을 유치하는 국가안전융합학부는 사업단이 추구하는 군사학과와 경찰학과, 소방방재학과 및 건설안전방재공학과와 학문 영역을 융합하여 '국가안전방재 분야의 통합·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바탕으로 출발한다.

특히 사회진출 3대 분야로 '군장교트랙', '공무원트랙', '엔지니어트랙'을 운영하며 재난대응 전문가, 위기서비스 관련 공무원 등의 지도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신입생은 통합과정에 참여한 4개 학과 중 한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필수 이수하여 2개 졸업장을 취득하게 된다.

아울러 건강과 체력증진, 재활 등 건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기량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사회체육학과를 스포츠과학부로 새롭게 명칭을 변경하고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스포츠과학부에는 학부제 운영과 함께 새롭게 신설된 건강운동관리학과와 기존 사회체육학과에서 명칭이 변경된 생활체육학과로 나뉘어 세부적이고 집

중적인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스포츠 과학화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인 양성을 위한 새로운 학부제가 운영된다.

건강운동관리학과는 건강관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학습하는 학과로서 신체활동과 관련된 전문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배우고 이에 따른 처방능력을 키우기 위해 신설된 학과이다.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건강과 운동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신설하여 이론교육과 실기·실습 교육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생활체육학과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현대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스포츠 과학화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과 실기능력을 겸비한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는 것에 주목적 등을 두고 개설되었다.

특히 21세기를 선도하는 생활체육 전문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활발한 지도교수제를 운영하게 되며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추진하는 생활체육학과 민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이정복 기자



“정시모집 가나다군서 539명 선발”

대전대학교(총장 임용철)는 2017학년도 정시모집 가나다군에서 총 모집인원의 약 235%인 539명을 선발한다. 대부분의 모집단위를 기군과 나군에 약 3:1 비율로 분배하고 다군은 미술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와 영상애니메이션학과만 모집한다. 전형유형으로는 모집단위별 계열특성에 맞추어 예체능계열은 실기위주로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는 수능위주로 선발하며 유형별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능위주유형은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군사학과전형이 해당되며 평가방법의 기본 틀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입학전형의 안정성, 전형방법 간소화, 수험생 부담감 완화를 고려했다.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은 수능 100%를 반영하고 군사학과전형은 단계별 선발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능 80%, 체력검정 10%, 면접평가 10%를 반영한다. 이는 수능성적을 주요하게 활용함으로써 고등학교 유형/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실기위주유형은 예체능계열학과만 해당되며 모집단위별 상이하긴 하지만 실기고사 반영비율을 60% 또는 70%로 반영하고, 전 모집단위에서 입학실적 및 자격증을 배제함으로써 수험생이 실기고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상대적으로 내신 또는 수능성적이 부족한 수험생들도 실기고사에서 만회할 수 있으며 예체능 분야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지닌 인재선발을 기대한다.

장학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대전대는 신입생 장학제도를 개선하였고 국가장학(1유형/2유형), 최우수성적장학(전체/단과대학), 우수성적장학(정원내 모집단위별 20%), 특별장학(수능성적/공인영어시험), 입학금면제장학(농어촌학생전형 전원)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증액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지급방안(최소 1년~졸업 시)을 통해 재학생이 되어도 경제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장학제도 세부사항은 본교 모집요강 또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전대는 가치를 높이는 비전교육, 창의성을 계발하는 리버럴 아츠 교육, 전문역량을 고양하는 융·복합 전공교육으로 3특성(자기 주도적 주체성/디자인적 사고에 기초한 포괄적 지성/실용적 전문역량)을 갖춘 창의적 전문인을 양성한다.

원서접수는 12월 31일(토)부터 1월 4일(수) 오후 7시까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대행소 홈페이지(진학어플라이/유헤이어플라이)를 통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합격자는 실기위주전형은 1월 31일(화), 군사학과전형은 2월 2일(목), 그 외 전형은 1월 20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며 등록금은 2월 3일(금)부터 6일(월) 오후 5시까지 합격자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정시모집 관련 사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Q&A를 활용하거나 방문 및 전화(042-280-2800)를 통해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 동 정 ●

2016의정성과 결산 기자회견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 26일 오전 11시 시의회 의정실에서 열리는 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특별회비 전달식에 참석, 오전 11시 40분 대전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열리는 2016년 의정성과 결산 기자회견에 참석에 참석.

2016 중앙시장 경영대상



한현택 동구청장 = 26일 오후 5시 청소년위센터에서 열리는 2016년 중앙시장 경영대상에 참석.

주간업무회의



박용갑 동구청장 = 26일 오전 8시 30분 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주간업무회의'에 참석.

특례사업 추진 설명회



장종태 서구청장 = 26일 오전 10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 추진 설명회'에 참석.

구청발전유공연표표창수여식



박수범 대덕구청장 = 26일 오후 2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구정발전유공 연표표창 수여식에 참석.

유성구 청소년 진로교육 포럼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와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은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진로교육 전문가, 학부모 대표, 학교장, 진로진학지원센터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청소년 진로교육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의 행복한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역할 모색과 유성구의 진로교육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한국요원대 장수명 교수의 '불확실과 불평등 시대의 미래준비'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하남진로체험지원센터의 사례발표와 지역 진로교육 수요·공급자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이번 포럼이 유성구의 청소년 진로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다변화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으로 청소년 진로사업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옛 관사촌 시민공간으로 조성한다

市, 문화적 가치 보존·시민들 문화예술 향유공간 활용

대전시시장 권선택은 충청남도 소유의 관사촌 11필지 중 도지사공관과 관사5, 6호 등 5필지를 37억 원에 매입했다.

시는 나머지 관사도 2019년까지 모두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문화적 가치 보존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공간인 (가칭)문화예술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가칭)문화예술촌 조성 사업은 현 모습 그대로 보존을 원칙으로 복원 또는 보수 후 시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시사 공관은 기본적인 보수 후 전시콘텐츠를 더하여 볼거리를 좀 더 보강하고 관사1호는 1932년도 건축양식으로 원형복원

을, 그리고 나머지 관사들도 시민 창작관, 휴게 공간, 입주작가촌 및 예술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주거지역에 맞는 편안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관사 간 정원을 연결하여 도심 속 힐링공원으로 조성하고 원도심과 테마근린공원, 보문산

까지 연결하는 문화올레길을 조성하여 도심 속 산소 같은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 대전의 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사촌은 총 10개동으로 도지사공관과 관사1-6호는 1932년~1934년도에 건립되었고 관사 7-10호는 1979년에 건립되었으며 도지사공관은 시지정문화재 자료이고 관사 1,2,5,6호는 국가등록문화재이다.

이영호 기자

대덕구 전통시장 활성화에 팔 걷어붙였다

일상적 경제소비 촉진 홍보 캠페인 병행 실시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지난 23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함께 최근 탄핵장국,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해소하고자 '일상적 경제소비 촉진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구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 전 직원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월 2회 구내식당 휴무일을 운영하는

등 경기회복에 적극 앞장서 왔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민들의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활동 동참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생단체 회원과 구 직원 등 300여명이 함께 참여했고 재능기부 동아리 '레인보우'의 공연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전통시장은 우리 서민경제의 근간이고 이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도 활성화시키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덕구는 그간 꾸준한 전통시장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앞으로도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erry Christmas 성탄행사



365 초록우산 산타를 찾습니다. 12월부터 시작된 "365 초록우산 산타를 찾습니다" 후원 릴레이 캠페인 100호 산타 돌과

이날 행사에는 쿠키 만들기, 산타 선물 증정식, 크리스마스 캐롤 배우기, 어린이영화 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엄마와 아이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풍성한 행사가 됐다.

산타복을 입은 직원들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장식한 놀이방이 아이들을 반겼으며, 100여명의 부모와 아이들이 행사에 참여해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며 부모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쿠키만들기 일일강사를 자원해 직접 재능기부로 참여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또, 방문객에 한해 유아용겨울 신발을 저렴하게 판매했고 수익금은 지역 내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을 위해 쓰여진다.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4세 자녀를 둔 A(37)씨는 "추운 날씨에 실내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쿠키와 선물까지 가져갈 수 있어서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다. 늘 좋은 행사로 이용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대전종합사회복지관에 감사한다."고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서 있는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은 54평 규모로, 2011년 9월 27일 개관해 올해로 5년째 지역주민들에게 장난감 대여와 놀이문화 제공하고 있다. 7세 미만의 아동과 부모가 이용가능하고 운영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송병배 기자

고병원성 AI 대응상황·향후대책 등 점검

행정부시장주관·기관별 역할 강조·현장중심방역활동 주문

대전시는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세종시와 충북 옥천 등 인근 지자체로 전파됨에 따라 지난 23일 정부와 화상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송석두 시 행정부시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관하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주재한 'AI 일일점검 영상회의'

에 참석, 현재 대응상황과 향후대책 등을 점검했다.

시는 현재 시행 중인 최고단계 방역활동에 더해 지금까지 AI 전 파상환을 분석하고 협력부서별 역할에 맞춰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특히 시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비롯해 야생조류 예찰, 소독점검

소 설치, 취약지역 예찰 등 현장중심의 차단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우리시와 바로 인접한 시군까지 시가 전파되면서 위급감이 높아진 만큼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지역 간차량 및 시민이동에 따른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호 기자



서구,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내년도 '구청 청사진' 제시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난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 직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구청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 6기 4년 차, 약속사업의 완성 및 2017년 실·국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 후 정책자문위원과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청년바로세움 프로젝트 추진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 ▲대전 서구 힐링 아트페스티벌 개최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 ▲월평도서관 건립 ▲서구 차대통합관 리센터 설치 ▲도마·변동 재정보족지구 기반시설(어린이공원, 도로확장) 조성 ▲문화와 힐링아트마켓 기반조성사업 추진 ▲도로 인프라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방안이 보고됐다.

또한 서구는 교육·문화·예술 활동 기반 강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및 대표 축제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

갈 계획이다.

내년도 서구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 ▲지역 간격차 없는 행복도시 건설 ▲일하는 행복이 있는 경제도시 구축 ▲안전하고 재난 없는 녹색 환경 도시 건설 ▲소의 없는 따뜻한 복지 도시 구현 ▲주민과 함께하는 강한 지방자치 실현 ▲수요 맞춤형 교육복지 도시 조성 등이 제시됐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한결같은 끈은 마음으로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는 의지로 구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신의성지(信以成之)의 마음으로 민선 6기 구정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동구, 사랑의 집수리 크라우드펀딩 목표액 초과 달성

복지사각지대 가구 실질적 혜택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집수리 크라우드펀딩' 사업 목표액 200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랑의 집수리

모금액 3억 원을 활용, 전국 100가구를 선정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호, 단열, 보일러 등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주택 상태와 가정 형편에

따라 10개 시·도별 1가구를 특별 선정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받아 추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선정된 10개 가구 중에서는 전기장판 하나로 홀로 추운 겨울을 내야 하는 동구의 북OO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채택되어 지난 23일까지 12일간 모금활동을 벌여 총 247만 원을 모금, 목표액 초과 달성과 동시에 전국에

서 두 번째 많은 적립액을 기록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사랑의 집수리 사업과 같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들이 발굴·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천사의 손길, 행복+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시책 등을 펼쳐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365 초록우산 산타를 찾습니다

후원 릴레이 캠페인 100호 산타 돌과

12월부터 시작된 "365 초록우산 산타를 찾습니다" 후원 릴레이 캠페인 100호 산타를 돌과했다.

지난 23일 서구청에서 실시한 저소득층 학생 학자금지원 일일 찾집 행사장에서 장종태 서구청장과 방차석 서구자원봉사협회의 회장 및 임원, 자원봉사자들이 "365 초록우산 산타를 찾습니다" 후원 릴레이에 동참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100호 산타, 방차석 서구자원봉사협회의 회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산타가 꼭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 산타 릴레이에 동참하게 됐다"며 "서구 자원봉사협의회 임원들과 자원봉사자들도 산타 릴레이에 함께 동참해줘서 고맙고, 이 릴레이가 꾸준히 계속 이어져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이다. 산타의 기적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365 초록우산 산타에 참여하게 됐다."

방차석 서구자원봉사협회의 회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산타가 꼭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 산타 릴레이에 동참하게 됐다"며 "서구 자원봉사협의회 임원들과 자원봉사자들도 산타 릴레이에 함께 동참해줘서 고맙고, 이 릴레이가 꾸준히 계속 이어져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박용갑청장, 대형목재가구해체수거등

대형폐기물 수거 현장행정 펼쳐



대전 중구 박용갑 청장은 23일 태평동 일원에서 눈이 흠날리고 찬바람이 부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내놓은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현장행정을 펼쳤다.

박청장은 환경관리요원과 함께 3시간여에 걸쳐 장릉 등 대형목재가구를 해체해 수거하는 물론 소파, 침대 매트리스 등 대형폐기물을 인영동의 처리장까지

실어 날랐다. 한편 박청장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새벽에 재활용품 수거 현장행정을 전개하며 중구 구석구석을 살피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민선6기 취임 첫 업무도 대형폐기물 수거로 시작하며 다음을 다지고 초심을 잃지 않는 행정을 펼쳐오고 있다.

김태선기자

동구, 2017 식장산 해맞이 희망나눔행사

새해 소망·간절한 염원 기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은 식장산 해맞이 광장에서 구민들의 새해 소망과 간절한 염원을 기원하기 위해 식장산 해맞이 광장에서 2017년 식장산 해맞이 희망나눔행사를 오는 1월 1일 오전 7시에 개최한다.

식장산 해맞이 행사는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첫 행사를 치른 후, 심수 년간 폭설·혹한·SI 등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온 대전의 대표 해맞이 행사다.

이번 해맞이 행사는 ▲화합의 시간, 희망메시지 선포, 새해 인사 ▲일출 감상, 희망 나팔 불기, 소망풍선 날리기 ▲만세 삼창, 즉

석 이벤트 ▲새해 소망 글쓰기, 나눔 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새해 첫날 식장산을 찾은 시민들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통해 추억과 감동을 주는 뜻깊은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구는 해맞이 행사를 통해 지난해 달성한 소기(所期)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구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만들기'에 힘을 모아 대전의 중심도시로의 재도약을 이루는 한 해로 삼을 예정이다.

이영호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042)538-3030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1층

시래기 산업으로 부자농촌 비상 꿈꾼다

청양군, 6차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최신택 시래기 가공공장 준공식 가져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23일 화성면 용당리에서 농업회사법인 ㈜한울효시(대표 임상기)의 최신택 시래기 가공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한울효시는 2015년 충청남도의 6차산업화 지원사업(두레기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10억7300만원(국비 5억원, 군비 3억원, 자담 2억7300만원)을 투자해 1일 최대 4톤의 무청을 처리할 수 있는 연면적 756.86㎡(지상 2층)의 시래기 가공공장을 건립했다.

이 곳 공장의 특이할만한 것은 국내 유일의 식품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시래기 가공 관련 특허 기술을 이전받아 무청 투입부터 완제품 박스 포장까지 일괄적으로 공정이 제어되는 자동화 생산라인을 갖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최신택 생산방식은 덕장에서 건



조하는 재래식 생산방식보다 위생적이며 끓는 물에 한번 삶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리가 간편하고, 이렇게 생산된 시래기로 음식을 만들면 식감이 부드러우며 특이하다. (주)한울효시는 청양군내 무 재배농가

로부터 무청을 수매해 본격적으로 시래기를 생산하고 식당 등 기 확보된 판로를 통해 판매하는 한편, 시래기전문 프랜차이즈 식당 운영을 통해 자체 소비를 꾸준히 늘려 공장을 연중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김치공장에 무, 배추 등 1차 산물만 납품해 오던 청양 농업인들은 앞으로 무청 판매를 통해 부가적인 농업 소득을 올리고 시래기 가공공장에서 일하며 농의소득까지 올리게 됐다.

이석화 군수는 "농업의 6차산업화는 이렇게 우리 농촌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며 "한울효시가 성공적인 농업의 6차산업화를 이룬 청양군의 스타 농식품 기업으로 성장해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청양=정삼범기자



아산시 최초 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

아산시 최초로 민간(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한 아산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22일 준공됐다.

모종·풍기 도시개발사업은 아산시 모종동 및 풍기동 일원 약32만㎡에 567억 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인구는 5,609명(2,337세대) 규모로 주택용지가 사업면적의 51.5%인 약 166만㎡,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48.5%인 15.6만㎡로 조성됐다.

이번 사업은 2006년 9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 2008년 10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2011년 2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2013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총 10여년 만에 준공된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 최초로 민간(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한 「아산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으로 향후 추진예정인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촉매제가 될 것이며, 더불어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모종동(모종동 일원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의 이익과 민간 개발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충청남도 공기업 최초 CCM인증 획득

고객중심 조직·제도 운영·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높은 평가 받아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동규)은 지난 22일 충남 공기업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은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

증하는 국가공인제도이며,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시작되어 170여개 기업만이 인증을 받을 만큼 대외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날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수여식에서는 18개의 신규인증 기업, 52개의 재인증 기업 등 총 70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공단은 CCM 리더십과 체계, 운영, 성과관리 등 전 평가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단계별 고객중심 조직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고객 니즈에 맞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단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들의 높은 실천 의지도 인증평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천안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올해 초부터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충남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일류공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김동규 이사장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고객 중심 경영을 확대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GAP농산물로 먹거리 안전 걱정 끝

GAP농산물 판매 기획전 열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김기주)이 하 '농관원 충남지원'은 연말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GAP농산물 판매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대전시 안영동 농협대전유통 하나로클럽 「GAP농산물 전용 판매관」에서 4일간 과일류와 곡류, 채소류, 버섯류 등에 대해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행사기간 동안 GAP농산물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사은품을 증정하고, GAP농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할인 행사도 열렸다.

농관원은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등을 고려해 25년까지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의 50%를 GAP인증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안전을 더한 GAP인증 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판촉전을 자주 열어 GAP농산물의 대중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서해안선 당진졸음쉼터(서울) 확장공사로 임시폐쇄 기간 연장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본부장 이상준)는 서해안고속도로 265.9k 당진 졸음쉼터(서울방향) 확장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당초 25일 개통예정 이었으나 화장실 신축 인허가 기간 추가 소요 및 기상악화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17년 1월 25일로 졸음쉼터 개통시기를 변경한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에서는 이용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VMS(3개

소) 홍보문안 수정 표출, 현수막(3개소) 수정 설치 등 사전홍보를 변경해 시행하고 있으며, 임시폐쇄기간 동안 가까운 휴게소를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개량공사를 설날전에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현대오일뱅크 대산고·서령고·장학금 수여

2003년부터 성적우수·저소득가정 학생 대상 장학금 전달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 장학사업회(이사장 문종박)는 22일, 대산고와 서령고 등 관내 중·고. 학생 9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2003년 출범한 현대오일뱅크 장학사업회는 공장이 소재한 충남 서산시 인근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장학생을 발굴, 매년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유폴동 상무는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

들에게 도움을 주게 돼 뿌듯하다"며 "인재육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날 충남 서산시 명지초와, 대산고를 찾아 각각 1천만 원의 학교발전기금도 기탁했다.

전달한 기금은 부족한 교육기자재와 도서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 현재까지 지원한 장학금 규모는 7억 원이며 후원한 학생은 1,260명에 이른다

서산=김정환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배재대학교, 겨울방학 맞아... 든든한 조력자

취업준비생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배재대 대학정보지원본부(본부장 이채현 교수)가 겨울방학을 맞아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역량강화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으로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

배재대는 2016년 고용노동부 주관의 취·창업 관련 3개 역점 사업에 모두 선정되어 이번 겨울방학 기간 중 총 7개의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취업관련 프로그램은 크게 직무체험교육 분야와 자격증 취득과정, 해외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으로 내년 2월까지 3, 4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 영입마케팅과정'을 실시한다. 이 과정은 마케팅 관련 직무교육 및 기업탐방 등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과 취업연계를 목적으로 진행하며, 향후 자신이 영입 마케팅직무에 적합한 적성인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3학년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재학생 직무체험'에서는 지역의 15개 기업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먼저 직무체험교육 프로그램

이정복기자

인권기본계획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아산시 맞춤형인권기본계획 수립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아산시시장 복기왕께서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산시 인권기본계획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인권기본계획은 총 7개 분야를 설정(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농업인, 노동, 이주민, 여성)하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증진 방안,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 구축이라는 3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인권기본계획은 지난 10개월간 아산시 인권위원회가 적극 참여하여 인권성문지 초안 작성 및

인권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하여 인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권 정책을 제안하는 등 아산시 맞춤형 인권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인권기본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련 실과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기본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향후 이행 실적을 점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권도시 아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한국영상대,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2016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성과 발표회'... 우수기관 선정



한국영상대학교(총장 유재원)가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영상진흥원의 주관으로 열린 '2016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성과 발표회'에서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세종지역 운영기관인 한국영상대 웹툰창작체험관은 지난해 3,737명이 이용했고 ▲지역민 참여 웹툰 학습 공간 제공 ▲중고생 진로체험지도 ▲지역내 산학연 계층 웹툰PD육성사업 ▲고교생 대상 웹툰랩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했다.

특히 이현세 등 유명만화가를 초청하여 맞춤형 레슨, 만화의 날, 니도웹툰PD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박석환 만화콘텐츠과 교수는 "우리대학은 웹툰산업협회 및 주요 웹툰 플랫폼 기업과의 협약으로 웹툰 작가나 PD등을 양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청소년들 비롯해 지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웹툰체험으로 건전한 웹툰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범기자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 이용 기업 10배 급증

특허청, 현재 900명가량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 이용 중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 이용 기업이 '15년 13개사에서 '16년 127개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현재 900명가량이 시스템을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은 영업비밀 관리에 특화된 내부 문서 관리 시스템으로 문서의 비밀 등급을 부여하고 접근 권한과 외부 반출을 통제하여 영업비밀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이가 임직원의 문서 열람 이력, 비밀유지서약서 관리 기능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기업 임직원들의 영업비밀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영업비밀 관리능력을 제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분쟁 시 비밀관리 노력에 대한 입증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청은 올해 이 시스템 이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방식을 간편화하고, 사용자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대폭적인 성능 개선을 하였다. 또한 시스템 설치 단계에서 이용 방법을 직접 교육하고, 불편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상시

지원함에 따라 사용자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이 시스템을 이용 중인 G사는 "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문서의 비밀등급 구분부터 취급 인력의 관리까지 영업비밀 관리기능 전반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S사는 "일부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내년도에는 회사 전체에 확대하여 사용할 계획이다"고 하였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박성준 국장은 "영업비밀은 일단 유

출되면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려워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호관리시스템을 더욱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은 영업비밀 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secret.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스템 보급과 더불어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기업 방문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봉관기자

아산시 자치분권협의회

분권토론회 참석

아산시(시장 복기왕) 자치분권협의회는 지난 22일,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분권토론회에 박준호 의장 및 김희영 부의장 등 10명의 분권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분권토론회 참석은 아산시자치분권협의회의 첫 공식 활동으로 충남 15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구성되어 활동 중인 아산시자치분권협의회의 화를 일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권의 필요성 및 현재 자치분권의 실정을 파악하여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충청남도 주관 분권토론회는 자치분권 확대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분권전문가, 광역·기초분권위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분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었으며, 광역·기초 자치분권협의회의 회원 구성된 전국 자치분권협의회가 충남선언이라는 자치분권공동성명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산=리량주기자

당진시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탄력'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고시, 인근 개발지역 연계효과 커



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자로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고시면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008년부터 개발이 논의되기 시작한 수청1지구는 지난해 12

월 가장 '당진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 요청이 들어오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수청1지구 개발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며 개발면적은 95만4,664㎡이며,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2,11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는 향후 공동주택 5,086세대와 단독주택 343세대를 공급해 총 1만2,285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또한 계획세대에 맞춰 상업·준주거시설용지,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수련시설, 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인근에서 개발이 추진 중인 수청지구(14만6,892㎡) 및 수청2지구(47만8,224㎡)와 연계돼 이 지역은 명실상부 당진을 대표하는 주거·상업·교육의 신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승인고시 이후 개발사업 착수 전까지의 절차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지정, 실시계획 인가 절차 이행 등이 남아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인 가원으로 최대의 이익 제재해 드려요,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을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39-28 대동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대학생 겨울방학 학습지원단 발대식

공주시, 사회 경험 제공과경제적 부담 줄여주기 위해 개최



공주시(시장 오시택)가 지역 대학생들의 재능을 살려 지역사회에 공헌함은 물론 사회 경험 제공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23일 대학생 겨울방학 학습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해 여름방학부터 시작된 네 번째를 맞는 겨울방학 학습지원단은 타 지역에서 대학 생활을 위해 공주로 전입한 학생들에게 입자리 제공을 통해 보다 많은 추억을 심어주고 지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배우면서 공주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나아가 공주 정착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학습지원단은 2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 대학생 117명이 참여, 지역의 저소득층 및 학습지도

희망 초·중학생 400여명에게 1:3 또는 1:4 매칭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 등의 학습지도와 함께 대학생들의 전공과목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학습지원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2017년 1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 기간중 20일 범위 내에서 학습지도도 실시하고 보수는 근무일수에 따라 90만원 이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초·중학생의 기초학습 능력을 증진시키는 물론 지역 대학생들의 현장체험과 교육실습 및 봉사 기회를 제공, 지역의 교육여건과 환경이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아산폴리텍대 시각디자인과, 대한민국 신미술대전 대상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윤기철)는 시각디자인과(학과장 이유영) 학생들이 제34회 전국공모 대한민국 신미술대전에서 대거 입상했다.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은 이번 공모전에서 디자인부문 ▲대상 이지은, ▲우수상 강건우, ▲합솔기 외

특선 13작품, 입선 15작품을 수상하였다.

출품한 작품들은 편집디자인, 광고디자인, 캐릭터디자인, CI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작품들을 출품했으며 대상 수상작과 우수상 수상작은 시각디자인 분야 취업과 가장 밀접한 편집디자인작품과 광고디

자인작품에서 수상했다.

입학한지 1년도 안된 1학년 학생들이 15명이 대거 입상하여 디자인 전문교육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매년 시각디자인과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편집디자인, 광고디자인, 웹디자인 관련 회사등으로 취업하고 있다. 시각디자인과는 디자인 산업 인재양성을 목표로 2012년 94.4%, 2013년 89.5%, 2014년 88.2%의 높은 취업률(대학정보공시 기준)로 취업 성과를 내왔으며, 소그룹 지도제를 통해 교수별로 밀착 지도하여 디자인 산업현장에 맞는 인재양성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각디자인과는 2017년 1월 3일부터 정시모집(수능, 학생부 지원 모두 가능)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신미술대전 수상작은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중랑 아트홀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아산=리량주기자

광해관리공단 충청지사,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보령시 성주면 개화2리 대상... 연탄1만장 지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사(지사장 강철준)는 폐광지역인 보령시 성주면 개화2리를 대상으로 지난 22일 연탄 1만장(570만원)을 지원하며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지원대상은 저소득가정, 진폐환자, 기초수급자 및 다문화가정으로 겨울철 난방연료가 부족한 소외계층 25가구에 400장씩 지원했다. 송병배기자

한 줄 릴레이로 연탄을 나르기 위해 보령시, 성주면사무소 영보연탄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협력했다.

강철준 충청지사는 "폐광 이후 경기침체와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사회가 어려워진 환경에서 더 큰 시련을 겪는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성주면 개화2리 함박골 마을은 총 140가구 292명의 주민이 모여 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며, 주로 쌀·포도·취나물·양송이버섯 등의 특산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개화포도는 당도가 높아 지역 특산물로 유명하다. 송병배기자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대고객 사은품으로 삼계탕 전달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본부장 이강신)는 지난 23일 고령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농업인을 위해 대고객 사은품으로 삼계탕을 전달했다.



부여소방서, 연말연시 이웃 사랑 나눔에 앞장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이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랑과 나눔 문화를 실천했다.



대전가정법원장, 대산학교 방문 대전가정법원은 청소년 비행 예방교육 현장점검과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고자 지난 22일 이내주 대전가정법원장과 소년부 판사들이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오영희)를 방문했다.



조치원소방서, 송유리 안전마을 지정 22일 연동면 송유리를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했다. 이날 장승업 시의원, 이종윤 연동면장을 비롯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소방관(이민원 이장) 위촉, 안전마을 지정 선포, 안전마을 현판 제막,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 등을 진행했다.



공주시, '동절기 폭설·결빙' 교통사고 대응 FTX 훈련 지난 22일 청백대교(공주방향)에서 겨울철 폭설 및 결빙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처와 추가 사고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FTX를 실시했다.



아산소방서, 온양여성이용소방대장 이·취임식 가져 23일, 아산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양여성이용소방대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은 지난 재임 기간 동안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지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강정자 이임대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 취임하는 김선숙대장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충남·세종지역, 전문연구요원 교육 실시 지난 22일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한국과학기술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중인 877명을 대상으로의무차권을 보호하고 복무부실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복무 교육을 실시했다.

'혼술남녀' 늘었다...어디서 몇잔?

식약처, 가급적 WHO 제시 적정 섭취 권고량 기준 음주할 것 당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 술을 즐기는 '혼술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혼술 시에는 도수가 낮은 맥주를 주로 마셨고 혼술족의 약 40% 가량은 고위험음주량 이상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20~40대 국민 총 6개 월 내 주류 섭취 경험에 있는 2000명(남자 1028명, 여자 9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혼술' 실태 조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자의 66.1%는 혼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6개월 전보다 혼술이 늘었다는 응답자는 25.5%였다.

이는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의식주를 모두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생활상이 음주문화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102만명)에서 2015년 27.2%(520만명)로 늘었다.

혼술 시에는 도수가 낮은 맥주를 주로 마셨고, 소주, 과실주, 탁주, 위스키가 그 뒤를 이었다.

주종별 1회 평균 혼술 음주량은 맥주(200ml) 4잔, 소주(50ml) 5.7잔, 과실주(100ml) 2.6잔, 탁주(200ml) 2.7잔, 위스키(30ml) 3.1잔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0~30대에 비해 소주 등 도수가 높은 술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혼자 술 마실 때는 여럿이 마실 때보다 음주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 37.9%는 혼술 시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고위험음주량 이상을 마셨다. 여성(40.1%)이 남성(36.1%)보다 고위험음주량 비율이 높았다.

WHO가 제시하는 고위험음주량 기준은 순수 알코올 양으로 남자 60g 여자 40g 이상이다. 도수 45%인 맥주(200ml)를 기준으로 남자 8.3잔, 여자 5.6잔, 도수 17%인 소주(50ml)를 기준으로 남자 8.8잔, 여자 5.9잔 이상이면 고위험에 해당한다.

혼술 이유는 '편하게 마실 수 있어서'(62.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17.6%), '함께 마실 사람이 없어서'(7.7%), '비용 절감을 위해서'(5.2%) 순이었다.

혼술 장소는 집(85.2%)이 대부분이었으며 주점·호프집(7.2%), 식당·카페(5.2%) 순으로 나타났다.

혼술 시 우려되는 부분은 건강(27.4%), 대인관계(14.2%), 음주량 조절(13.6%) 등이었다.

주로 먹는 안주는 과자류(40.9%), 육류(고기·소시지

등(33.0%), 견포·견과류(26.7%) 순이었고, 안주를 먹지 않는다는 응답도 8%에 달했다.

응답자 69.4%는 송년회 계획이 있으며 이 중 93.2%는 술을 마시겠다고 답했다. 음주 차수 계획은 1차 31.3%, 2차 57.3%, 3차 이상이 11.4%이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음주문화가 달라졌거나(13.6%), 달라질 것(66.2%)이라는 응답이 79.8%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혼자 술을 마시면 음주량을 자제하기 어렵고 자주 마실 수 있으므로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신년회 계획이 있는 경우 건강을 생각해 가급적 WHO가 제시하는 적정 섭취 권고량을 기준으로 음주할 것"을 당부했다.

김태선기자

홍성교육지원청, 2017 중학교 신입생 배정 완료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옥심)은 지난 20일 홍성군중학교입학추진관리위원회를 열어 2017학년도 중학교부서입학추진 및 배정을 완료했다.

지난 23일 홍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추첨과 배정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됐으며, 총 배정대상인원 903명 중 홍성학군에 261명, 광천학군에 41명, 홍성여중 외 8개 학군에 601명의 학생이 배정됐다.

관내 초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배정결과와 배정 통지서를 오는 27일에 초등학교를 통해 배부하며, 개인별 접수지는 28일 홍성교육지원청 열린민원실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주소지 이전에 따른 관내 재배정은 내년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관외의 경우는 내년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내포=전용식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성대로 26-28 태동빌딩 7층

'사랑의 손잡기' 결연가정 위문

대전소년원, 연말연시 맞아·위문금품 전달



대전소년원(원장 오영희)은 지난 23일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의 손잡기 결연가정을 방문해 학용품과 간식 등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사랑의 온정을 나눴다. 대전소년원은 2012년 6월 소년원 인근 지역 주민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2012년 7월 사랑의 손잡기 결연을 맺었으며, 이후 매월 직원들의 작은 사랑의 손길

을 모아 생활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소년원 오영희 원장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결연가정의 자녀들이 좌절하지 않고 밝고 씩씩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전 직원이 동참해 더 많은 결연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정상범기자

당진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구조·구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당진소방서(서장 방상천)는 지난 22일 관내 교통정체 구간에서 화재, 구조·구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길 터주기 훈련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단속에 나섰다.

매달 시행되는 소방차길 터주기 훈련은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긴급차량 양보운전의 자발적인 참여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관리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화재의 경우 진입이 가능한 초

기나 성장기인 5~6분 이내 도착해 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심폐정지 환자의 경우 4분 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으로 인해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제29조) 상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최근수기자

기상청, 2017년 1월~3월 기상 전망 발표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 분포 보이겠음

기상청이 23일 향후 3개월의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음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다소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며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다.

1월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

향을 받을 때가 있겠다.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으며, 기온 변화가 크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다.

2월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다.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일시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다.

3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다.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겠다.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평년보다 낮은 해수면온도가 점차 상승하여 중립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봉관기자

충남 서천 마량항 해넘이 해돋이 축제 취소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전면 취소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항에서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던 '2017 서천 마량항 해넘이 해돋이 축제'가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전면 취소되었다.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서면개발위원회(위원장 홍성돈)는 정부의 권고와 심각한 현상향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있으나 축제를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서천군에 전달해 왔다.

이에 서천군은 23일 오후 3시 문화관광과, 서면, 농업과 및 안전총괄과 부서의 관계자와 홍성돈 서면개발위원회 및 개발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 충남, 세종, 경기 등 AI 주요 발생지역의 현황 파악과 서면개발위원회와 서천군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고병원성 AI 추가확산을 막고자 해넘이 해돋이 축제를 전면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서천군은 AI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소규모 농가 등 방재단 소속 지원 및 방역상태를 점검하고 긴급 축사 소독약품 지원, 시 차단방역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등 AI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홍성돈 서면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서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축제 전면 취소를 적극 홍보 및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선기자

공주경찰 '112신고 고객만족도' 전국 2위 달성

전 경찰들이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한 결실

공주경찰서(서장 강복순)가 전국 112신고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89.3점을 받아 전국 평균 76.3점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로 전국 251개 경찰서 중 2위(도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포커스리서치가 실시 한 것으로 112신고의 현장 도착시간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사건처리의 신속성·전문성, 담당경찰의 성의·진절성·정령

성,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설명 등 8개 세부항목을 조사한 결과이며 지역경찰의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번 성과는 여성으로서 섬세함이 빛나는 강복순 서장의 리더십과 경찰활동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 경찰들이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한 결실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강복순 서장은 "112종합상황실

과 지역관서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는 공주경찰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주경찰서는 강·절도 등 중요범죄 현장검거지수 도내 1위, 성폭력 등 4대아 분야에서는 도내 2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아산소방서, 연말연시 화재특별경계근무 돌입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근)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화재예방활동 강화 및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23일부터 26일 및 30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추진하는 이번 화재특별경계근무에는 아산소방서 2개과, 1개단, 5개 119안전센터 소

방공무원과 24개 대 의용소방대 등 764명의 소방력과 38대의 장비가 총동원되며 출동상태 100%가 동원지,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는 등 초동진압 및 출동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취약시간대 기동순찰을 강화하

여 실시하고, 소방출동로 확보 등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제거, 비상구 적치물 제거·개방 등 안전지도 활동을 벌인다. 이와 함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중연립집사(온양온천역, 티미네)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해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새해맞이 산행인구의 증가에 대비 산악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올해 직장인 공감 샀던 신조어는?”

<사람인> 가장 공감 샀던 신조어 ‘사축’ 꼽아...마치 회사의 가축처럼 일하는 직장인

경기침체 속 올해도 험난한 직장생활을 보낸 직장인들의 마음을 담은 신조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직장인들이 많이 공감하는 ‘직장생활 신조어’를 정리했다.

◆ 일에 시달리는 ‘사축’, ‘프로아근러’ 공감... ‘워라밸’ 증시 현상도

올해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공감을 샀던 신조어로 ‘사축’을 꼽을 수 있다. 마치 회사의 가축처럼 일하는 직장인이라는 의미로, 직장인들의 현실을 자조하는 표현이다. 또, 야근을 밥 먹듯 일하는 ‘프로야근러’, 휴가도 마음 놓고 떠나기 어려워 회사로 ‘출근휴가’를 가는 직장인은 휴식을 포기할 정도로 바쁘고 고달픈 게 시는 ‘워포족’의 모습이였다. 관련된 도서를 비롯해 심화 일러스트는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었고, 최근 일본의 한 유명 대기업 신입사원이 격투에서 벗어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국내 직장인들에게도 화제가 됐다. 이렇다 보니 오히려 적당히 먹고살의 질을 높이는 풍조도 생겨나고 있다. 구직자나 이

직 희망자들 사이에서 기업의 ‘워라밸’(워크 라이프 밸런스)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입사지원하는 것이다.

◆ 100세시대 직장인... ‘반퇴자산’과 ‘퇴직 크레바스’

평균수명이 증가하며 은퇴 후 직업에 대한 준비가 절실했지만,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장년은 커녕 오히려 조기에 퇴직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황에 타격을 받은 여러 업계에서 희망퇴직을 신청 받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조기퇴직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반퇴세대’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반퇴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반퇴자산’,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빙하의 깊은 균열에 빚낸 ‘퇴직 크레바스’도 관련해서 등장한 신조어다.

◆ 세대가 나는 상사... ‘포라이 질량보존의 법칙’, ‘회의주의자’

직장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대상은 단연 상사다. 이들을 가리키는 다양한 신조어는 직장인의 공감을 사고 있다. 어디서나 이상한 사람은 반드시 한 명씩 있다는

‘포라이 질량보존의 법칙(진상 불변의 법칙)’의 대상자는 상사인 경우가 많다. 또, 필요 이상으로 자주 회의를 소집하는 상사는 ‘회의주의자’로 불린다. 업무에 꼭 필요한 회의라면 해당사항이 없지만, 회의랍시고 정작 업무 이야기보다는 잡담이나 후수를 늘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젊은 직원과의 세대 차이를 좁히기 위해 어설픈 유머를 던졌다가는 역지로 웃어주지만 어느 순간 세대차이 나는 ‘아재 상사’ 취급을 받고 있을 지도 모른다.

◆ 직장인의 나홀로 문화... ‘워런치족’, ‘편도족’

사람인 조사에서 2030세대 성인남녀 2명 중 1명이 스스로를 혼밥, 혼술 등을 즐기는 ‘나홀로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홀로 문화의 확산은 직장 문화도 조금씩 바꾸고 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다같이 밥을 먹지 않고 혼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워런치족은 워킹과 런치의 합성어로, 점심시간을 이

용해 걷기 운동을 하는 직장인을 의미한다. 런치쇼핑족은 점심시간을 쪼개 쇼핑을 하는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편의점 도시락 열풍과 함께, 혼밥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편도편의점 도시락족’ 직장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 육아전쟁... ‘독박육아’, ‘할빠-할마’도 늘어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며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는 제도는 아직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육아는 여전히 엄마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에 오늘도 고생하는 워킹맘들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워킹맘의 육아현실을 대변하는 단어들도 등장했다. 주변의 도움 없이 나홀로 아기를 키우는 경우 ‘독박육아’에 빚내 ‘독박육아’로 표현된다. 반면, 조부모가 육아를 대신 하면서 아빠-엄마 노릇을 한다는 ‘할빠-할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손주들을 위해 고가의 의류나 장난감 등의 소비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두고 ‘할부 열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정복기자

충남도교육청,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도민감사관, 감사인력풀,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자 등 108명 대상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보령 임해수련원에서 도민감사관, 감사인력풀,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자 등 108명을 대상으로 올 한해 성과와 내년 감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가졌다.

이날 연수에서는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처음 선정된 도민감사관들이 그동안 교육지원청 및 학교현장의 감사 결과와 2017년도 도민감사관의 감사분야,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감사담당자들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인 감사교육원 강인옥 교수로부터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감사기법에 대해 듣고, 감사요원들에 대한 정례도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정례연수원 배정에 교수를 초청해 ‘정례력을 높이는 디딤돌 일상의 정례 실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내포=전용식기자

참샘초등학교에서 ‘첫 축구부 창단’

세종시교육청, 지역 교육공동체의 염원 속 처음 축구부 창단



지역 교육공동체의 염원 속에서 세종시에서는 처음으로 축구부가 창단됐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3일 오후 2시 참샘초등학교(교장 장인자, 이하 참샘초)에서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고준일 세종시의회의장, 세종시체육회 및 축구협회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샘초 여자 축구부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축구부 창단과 관련해 지역 교육공동체의 바람과 세종시체육회 및 세종시축구협회와의 긴밀한 협의, 참샘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시교육청 승인 등을 거쳐 이번 창단이 이뤄졌다. 그동안 참샘초 축구부가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에 참가하면서 기본기를 다졌고, 이로써 축구에 대한 참샘초 교육가족의 관심과 역량을 결집시킨 것도 유효했다. 또한, 세종시 관내 대학교에 여자 축구부가 운영되고 있어 향후 연계육성에 밝은 전망이 더해져 세종시에서 첫 공식적인 엘리트 축구부로 탄생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영재교육원에서 미래역량을 길렀어요”

청양교육지원청, 2016학년도 청양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수료식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중철) 영재교육원은 지난 23일 대회의실에서 ‘2016학년도 영재교육원 수료식’을 가졌다.

2016년 청양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은 공동교육활동과 프로젝트형 사사과정, 진교캠프, 지역사회 봉사활동, 해외 문화체험학습 등 다양한 영재 프로그램을 전문 영재강사 8명과 함께 1년 동안 진행했다.

2009년에 개원하여 제8기 수료생을 배출하는 이번 수료식에서 학생들은 과정별 활동영상을 보며 그동안의 영재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영광스런 수료증을 받을 때는 부모님과 내빈들의 축하와 격려의 박수가 이어졌다. 지난 1년을 되돌아 본 최은서 학생(정산초 6년)은 “다양한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웠고,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보람 있었으며 앞으로도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자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교사 학습공동체 ‘다락방’ 성과보고회

대전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교원 대상 지원하는 행복교육 프로젝트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3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2016 교사 학습공동체 다락방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교사 학습공동체 [다락방]은 ‘교사와 학생 모두(다)가 배움의 즐거움(樂)을 느끼는 교실(房)’을 꿈꾸는 교사 연구 동아리로, 시교육청이 올해 관내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행복교육 프로젝트였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 ‘특강’ 시간에는 이동규(경기고립중 교사)가 ‘교사 학습공동체’의 운영 사례에 대한 기초 발표가 있었고, 2부 ‘나눔과 소통’ 시간에는 교사 학습공동체 [다락방] 4팀과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3팀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소감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발표한 동아리로는 ‘퓨전예뉘고등학교 연합’,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탐구 교사공동체(대전의삼중)’, ‘喜喜樂樂 Do Dream(대전보은초)’, ‘감시덕지(대전구방고)’, ‘같이가치(대전전민고)’, ‘STEAM연구회(대전제일고)’, ‘지족국어축제(대전지족고)’로, 동아리별로 소감 및 앞으로의 운영의 방향 등을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였다.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교사 학습공동체 [다락방]을 1년간 운영하면서 무척 설레고 기뻐했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내용 전달이나 형식적인 회의 문화를 과감히 벗어나 동료교사들과 교실수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교사 자신만이 아니라 학생들과 많이 친밀해졌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가 성장하는 모습을 목도할 수 있어 무척 보람찬 한 해를 보냈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환기자

금산교육지원청, 유치원통합교육거점기관 운영

나너우리 가까이 ‘겨울을 밝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금산교육지원청(순중대 교육장)은 12월 15~23일, 특수학급 미של치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반을 대상으로 유치원통합교육거점기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장애유아와 비장애유아가 함께 협동조형활동을 통한 친밀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아이들은 ▲사랑을 나누는 행복트리 만들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 도와주기 ▲친구 트리에 관심갖기 ▲사용한 준비물 함께 정리하기 등의 또래집단 형성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보냈다.

금산=전정민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2016 자유학기 보고회 개최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충청남도 남부평생학습관에서 관내 학교장·담당교원·유관기관·학부모·학생 등 2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학기성과보고회 ‘꿈키움까니눔 논산계룡 자유학기 행복이키기’를 개최했다.



태안 고남초 검객 꿈 키워 태안 고남초(교장 박영순)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최로 진행되는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검도 배우기 수업에 참여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취지로 운영되는 만큼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고남초 학생들에게 검도수업은 새로운 운동종목을 접하는 기회가 됐다.



음봉중, 흡연예방교육 실시 지난 22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담배에 들어 있는 4,800종의 화학물질, 69종의 발암물질을 소개하면서 특히 일산화탄소, 타르, 니코틴의 피해 사례를 보여주었다.



당진 고산초, 동아리 발표회 개최

당진 고산초등학교(교장 배무룡)는 지난 22일 급식실에서 전교생과 함께 “끼” 나눔 동아리 발표회를 진행했다.

귀여운 1학년 학생들의 첫 인사로 시작된 이번 축제는 바이올린부, 피아노부 등 방과후 학교에서 갖고 막은 실력과 학급친구들과 함께하는 댄스, 수화 등 다양하게 준비한 공연을 즐거운 표정으로 진행했다.

공연 외에도 학생들이 열심히 만든 미술작품들과 학생들의 1년의 모습이 담긴 학급관까지 다양한 전시물들이 전시가 되었으며, 학부모들은 연신 웃음을 지으며 공연과 작품들을 관람했다.

한달여 넘게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한 이번 행사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동 정 ●

지역인재 육성 지원협의회



안희정 충남도지사= 26일 오전 11시에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충남체육회 사회에 참석, 오후 2시에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협의회에 참석.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업무협약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26일 오전 10시에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열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업무협약』, 오후 2시에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협의회』에 참석.

첫마을 학교 졸업식



최고진 세종시교육감= 26일 오후 6시 30분, 한솔동6단지 커뮤니티센터 3층에서 열리는 첫마을 학교 졸업식에 참석.

‘미래 기후변화 적응사회’ 밑그림 나왔다

충남도, 해양수산·물 관리·생태계 등 총 7개 부문에 걸쳐 83개 사업 추진

충남도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제2차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건강, 재난, 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 물 관리, 생태계 등 총 7개 부문에 걸쳐 83개 사업을 추진한다.

도의 제2차 기후변화 적응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수립(2017~2021년)하는 계획으로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년)과 연계된다.

1차 계획 대비 정확성·활용성 제고에 방점=도는 지난 19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충남연구원 이 지난 10개월간 수행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리스크 평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분야별 기후변화적응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취약성 정의 및 평가방법, 기존 연구, VESTAP을 사용해 15개 시·군 및 207개 읍·면·동

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번 2차 계획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의 범위를 1차 시·군에서 읍·면·동별로 상세화 하고,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현황, 중앙·지방정부·각종연구기관 등이 지정한 위험지역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리스크 평가를 추가해 정확성과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기후변화적응 정보·사업 확산 목표=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제2차 계획은 '기후변화에 적응, 현명한 선택, 함께하는 실천, 행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기후변화적응 세부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부담별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건강 부문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오염 모니터링 강화 △화학물질오염 예방에 따른 기후환경조사·평가 연구 △기후변화취약계층 보호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재난·재해 부문은 △도시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 △소하천 정비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 등 12개 사업, 농업 부문은 △병해

충 방제 및 관리방안 구축 △산정적임 농업용수 개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기술 개발 등 13개 사업이 포함됐다.

산림 부문은 △임산물 육성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노거수 및 보호수 보전·관리 등 7개 사업이며, 생태계 부문은 △주요하천 수생태계 측정망 운영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모니터링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 사업 등 8개 사업이다.

물관리 분야는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지하수 보전 및 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10개 사업, 해양·수산 분야는 △서해안 연안환경측정망 모니터링 △어항정비사업 △해양쓰레기 관리 등 7개 사업이 추진된다.

향후 5년간 2차 계획을 통해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약 3조 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도는 계획을 내년 2월 환경부에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까지 사업별 세부사항 등을 보완해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이번 계획의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환경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적응TF'를

구성·운영 중으로, 매년 적응계획 이행사항을 평가, 관련 자료를 갱신해 기후변화 불확실성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동원 도 환경복지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기후변화적응 대책을 충남도의 지역 특성에 맞게 실행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 충남도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역량을 증진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2016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

예산농기센터 전국 최우수 기관상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2일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6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에서 농촌진흥청 우수 농업기술센터 전국 최우수 기관 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술센터는 2016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선정지표 15분야 51항목 86개의 세부지표에 대해 정량평가를 거쳐 선정됐으며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기술센터는 올 한해 3농 혁신을 통한 가치 있는 농업육성을 위해 ▲예산사과 명품화 수출단지 조성 위한 엔비메드러브 품종 200ha 조성 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 60t 수출 ▲감색날개매미충 등

발해충 982ha 방제로 확산방지 ▲계분이용 파플 농병 시행 고품질 예산쌀 42농가 50ha 재배로 농협 계약재배 추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했다.

또한 화훼 특새 소득 작목으로 라벤클러스, 백합을 육성하여 일본 수출 등으로 1억 5000만원의 농가소득이 있었고 제2회 예산국화 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예산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충남농업인 정보화대회 유공기관 표창과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래밍 경진,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동대회, 농산물마케팅 활성화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지난 10월 충남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농업기술인 생활개선회 과제경연에서는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국립원에특작과학원과 국내 육성 사과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3년간 시범 중에 있고 사과 병해충 예찰 모니터링 사업으로 병해충 예방 및 기후변화 대응 품종과 개발을 위한 시범 연구포장을 3,300㎡ 조성해 새로운 소득 작목 재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길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득 있는 농업, 능력 있는 농업인,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장원 문화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촉 구성

군지 디지털 개편 등 본격 추진

예산군은 지난 2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예산산성 발굴조사와 예산군지 디지털 개편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위촉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황선봉 군수를 비롯해 추진위원회 위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을 2019년도까지 시·관 합동으로 추진하고자 추진위원회를 위촉하고 기념사업 발굴 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부시장 일부와 군의원, 교수, 연구원, 기관단체 대표 등 실질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별 대표 25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기념사업의 홍보 및 대외협력,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군민제안 기념사업 등에 대해 제안 및 자문,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산=양성업기자

특화상권 '어반아트리움' 본격화

행복도시, 5개 구역 공모사업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순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최대 상권인 나성동2-4생활권) '도시문화상업가로(이하 어반아트리움)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종재, 이하 행청)은 지난해 11월 사업예산서 평가를 거쳐 당선된 '어반아트리움' 5개 구역 공모사업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어반아트리움' 5개 구역 중 P2구역(CJ2-2)은 가장 먼저 공사를 착공했고, P1구역(CJ2-1)과 P3구역(CU3)은 건축허가 후 착공을 준비 중이며, P4구역(CU4)과 P5구역(CU5-1)은 건축허가를 진행 중이다.

'어반아트리움'은 행복도시 중심상업지구인 나성동2-4생활권에 총연장 1.4km의 보행중심 도시문화상업가로로 조성하는 것으로, 세계 최고의 건축디자인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의 최고가 입찰방식 대신 건축계획·관리운영계획·가격을 종합평가하여 부지를 공급하는 사업제안공모 제도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행복도시, 5개 구역 공모사업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순조

특히, '어반아트리움'에는 ▲상업 공간·광장·소공원(park park)·수(水)공간 등으로 이어진 1.4km의 보행전용 걷기 좋은 거리 ▲육상정원과 지붕을 활용한 상층부 휴식 힐링 공간(Urban Cloud)뿐 아니라, ▲건물과 건물의 3-4층을 연결하여 공영·전시 등 문화용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종재 행청장은 "세계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도시문화상업가로가 공중주택, 상업용지 공모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며, "어반아트리움 상가 등 다양하고 화려한 편의시설이 빨리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홍성군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신청 유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홍성군은 동절기 맞아 내년 2월 말까지 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한다.

군은 기초수급 탈락자와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장기 미납자,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의 계층 등에 대해 복지담당자 및 복지이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집중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집중 조사에서 발굴된 복지 소외계층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급여 신청을 유도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생계비와 의료비 등 긴급지원과

차상위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 지원활동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한다.

또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가정의 체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홍성군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과 경찰서, 대학 교수, 전문상담가 등 26명으로 구성된 홍성군 솔루션 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사회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는 가정문제가 일선에서 해결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동절기 집중 발굴기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위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각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복지과(630-1326)로 연락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성군은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도를 높이기 위한 복지허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홍성읍, 광천읍, 홍북면, 장곡면, 갈산면, 구항면 등 6개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였으며, 2017년 추가로 5개면(금마면, 홍동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에도 사회복지인력을 보강하여 맞춤형복지팀으로 조직 개편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신청하여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홍성=전용식기자



감사역량 강화 연수 가져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보령 임해수변원에서 도민감사관, 감사인력뿐, 행정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자 등 108명을 대상으로 올 한해 성과와 내년 감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가졌다.

이번 연수에서는 도민의 교육행정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처음 선정된 도민감사관들이 그동안 교육지원청 및 학교현장의 감사 결과와 2017년도 도민감사관의 감사분야,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감사담당자들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인 감사교육원 강인옥 교수로부터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감사기법에 대해 듣고, 감사요원들에 대한 정례도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배정애 교수를 초청해 '경쟁력을 높이는 디딤돌일상의 청렴 실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더욱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장 확산 및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논의하면서, 올해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문제점으로 드러난 5개 영역에 대한 재발방지, 개선방안을 위한 분담의 기회도 가졌다.

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올해는 종합감사 60곳, 특정·재무감사 188곳 등 전체 248기관을 감사하고, 예산집행을 위해 하반기부터 계약시범을 신설해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연속 2등급 전국 3위의 성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B등급으로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감사관실은 청렴 충남교육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선도적 역할을 통해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의 충남교육'을 이루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복 기자

행복도시~공주연결도로(3구간) 사업 본격 추진

오는 2022년까지 건설 예정... '충청권 문화교류 확대 기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종재, 이하 행청)은 '행복도시~공주연결도로(3구간)'의 내년도 설계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 초에 조속한 설계사 선정과 설계착수 등을 위한 사전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공주연결도로(3구간)'는 사업비 480억을 행복청과 공주시가 각 50%씩 투입하여, 노후화된 금강교를 대체하는 신설 교량(연장 0.6km, 4차로)을 건설하

는 사업으로, 2017년에 완공 예정인 '공주연결도로(1구간)'과 2017년에 착공해 2020년에 준공 예정인 '공주연결도로(2구간)'에 연계하여 2022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행복청과 공주시는 기존 금강교가 문화재청 등록문화재임을 감안하여, 신설 교량은 기존 금강교와 어울리면서도 특색 있는 설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금강교는 트러스철

교로 1932년에 건설되었으며, 노후화되어 현재 15톤 이상 화물차, 18인승 승합차의 통행이 제한되고 일방향 1차로만 운영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고성진 광역도로과장은 "행복도시와 공주시의 광역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백제역사문화권과의 연결 기능 확충으로 충청권 문화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외이웃돕기 앞장

재가장애인 난방비 지원 성금 전달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장호수, 이하 연구원은 지난 22일 공주시 계룡면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을 방문하여 재가장애인 난방비 지원 성금을 전달하고 위문했다.

이번 전달된 성금은 지난 11월 16일 문화재 조사 및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재조

사연구 대상인 '문화재청장 표창'을 수상하면서 부성금으로 받은 100만 원으로, 이를 전액 성금으로 전달했다. 장호수 원장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부성금을 뜻깊게 쓰자고 직원들의 뜻을 모아 소의 계층에게 기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연구원으로 자리매

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복지관과 후원을 맺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매월 꾸준하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도 '공주 총원서원 활용사업'이 전국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수 상당한 포상금 전액을 복지관에 성금으로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웃사랑 정신을 이어가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김정환기자

동정

정책포럼



김홍장 당진시장 = 26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6년 미래 교육정책 포럼에 참석.

1인시위



이종연 당진시장 = 26일 오전 8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당진땅 수호를 위한 1인시위에 나선다.

송년 기자회견



한상기 태안군수 = 26일 오전 11시 20분 군청 브리핑실에서 열리는 송년 기자회견에 참석.

정기총회



이석화 청양군수 = 26일 오전 10시 군수실에서 열리는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협약식에 참석 후 오전 11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2016년 청양군지역발전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당진의 무형문화유산 발간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24개 종목 소개

국립무형유산원이 '당진의 무형문화유산' 서적을 발간했다. 한국민속학회 당진지역 무형문화유산 조사단이 집필한 '당진의 무형문화유산'은 지난해 당진시가 '2015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되면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의 성과물이다. 이 책에는 비록 지정 무형문화유산으로는 등록돼 있지 않지만 보존과 계승 가치가 높은 총 24건의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이 소개돼 있다. 책 구성은 당진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7개 분야로 나눈 지역무형문화유산 소개, 당진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미래를 위한 제언 순으로 돼 있다. 소개된 주요 무형문화유산으로는 ▲안섬 배치기 ▲대호지면 농요 ▲남사당과 새남정이 ▲당진의 마을농악 ▲짚풀공예 ▲대장장 문화 등이다. 또한 당진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인 호박지리뚝을 비롯해 실치회무침과 짚기리술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했으며, 뱃기랏대 거북놀이와 농기문화도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분야 유산으로 소개하고 있다. 책에 소개된 24건의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은 유산의 명칭과 영역 및 소재지, 전승지를 비롯해 유산의 내용뿐만 아니라 유산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현재상황과 계승방식 등을 담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당진시 행정력 다방면에서 높은 평가

열심히 일한 올 한 해 각종 평가서 두각... 수상 실적 모두 45건 달해

당진시가 올해 충남도를 비롯한 상급기관 등의 평가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당진시는 올 한 해 동안 각종 평가에서 수상한 실적은 모두 45건에 달하며, 이중 가장 많은 수상을 거두며 두각을 나타낸 분야는 농정분야로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소비자 대표브랜드 대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올해의 히트상품 선정, 당진 사과연구회의 제2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신평양초장의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등을 연이어 수상했다.



도입초기 시행착오를 겪었던 당진형 주민자치도 신평면주민자치위원회가 제15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주민자치분야 우수상과 충남형동네자치 한마당 사례발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정상계도에 올랐다. 가장 주목할 점은 올해 당진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방면에서 행정력을 그 어느 해 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시는 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생산성 평가에서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다시 우수상을 차지한데 이어 민원행정제도 개선 분야에서도 민원처리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개선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일자리대상 우수상 3년 연속 수상(고용노동부와 2016년 통계조사업무 유공 표창(통계청),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올 올해는 버그내순례길 이 국제상인 2016 아시아도시경관대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가 지역축제 특화부문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을 받는 등 문화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인 한 해였다. 당진=최근수기자

불합리한 행태·관행 척결로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관 구축

청양군, 2016 불합리한 행정행태·관행 개선계획 보고회 가져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석화 군수를

비롯한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군정과정로 '불합리한 행정행태 및 관행 타파를 위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그동안 군에서는 공무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개선하고자하는 관행 158건을 제안 받아 사례모음집으로 발간해 전 공직자가 공유, 실천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신규시책을 발굴한 바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 부서별로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보고하고 분석했으며, 신규 시책과 지속 추진해야 할 시책 등 63건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민간보조사업 추진방법 개선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개선 ▲농업발전기금 운용 방법 개선 등 군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례와 ▲공공차량 관리 운영 실태 개선 ▲각종행사 시의전행사 간소화 ▲공무원 근무평정 시스템 개선 등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크고 작은 혁신안이 보고됐다. 이석화 군수는 "공무원의 생각과 행동이 변해야 군민이 행복하다"라며 "과거의 관행과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군에서는 선정된 과제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청양=정성범기자

아산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잠정 연기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는 내년 1월 10일부터 8일간 실시하기로 하였던 201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매년 실시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인현장으로 과제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가경영능력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내년에는 식량작물

등 11품목, 2000명을 대상으로 계획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상황 조정되고, 다중이 모이는 행사가 연이어

취소됨에 따라 201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무기한 연기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AI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중이며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2016 하반기 사무관8명 정년퇴임식 가져



태안군의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묵묵히 힘써온 사무관 8명이 퇴임

군은 23일 군청 대강당 및 로비에서 한상기 군수를 비롯한 군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재연 행정사무관, 김성환 행정사무관, 김수곤 시설사무관, 신현국 행정사무관, 이운우 행정사무관, 이준구 행정사무관, 이춘자 행정사무관, 조항욱 행정사무관이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짧게는 35년부터 길게는 42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태안군의 발전을 위해 힘쓴 이들 공직자들은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집으로 폭 넓은 지식과 경험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며 동료 직원들의 귀감이 돼 왔다. 또한, 팀장, 부서장 및 읍·면장

등을 두루 거치며 군민 가까이에서 소통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직원 간의 화합에도 앞장서 '행복한 태안' 건설에 이바지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에 임해왔다. 정년퇴임을 맞이한 공직자 8명은 군청 대강당 및 로비를 찾은 350여 동료 공직자 및 가족들의 따뜻한 박수 속에 정들었던 공직 생활을 떠나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됐다. 퇴직자들은 "공직생활동안 옆에서 큰 힘이 돼 준 동료들과 가족들, 선·후배 공직자들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맺어온 인연의 끈을 소중히 생각하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태안군의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AI확산 우려 청양군 2017년 칠갑산 해맞이 행사 취소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실시 예정이던 '2017 정유년 칠갑산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16일 농림축산

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데다, 시의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시가 전파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군은 AI 발생지역은 아니지만, 현재 전국적인 AI 확산 추세를 고려해

선제적인 예방조치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정유년 새해의 힘찬 출발과 함께 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부득이 취소하게 되어 아쉽지만, 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지난 16일부터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24시간 거점통제소를 운영하면서 AI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양=정성범기자

우리/동/네



태안군 주차난 해소 '청신호'

태안읍 2곳에 총 206면 규모, 공영주차장 준공

태안군이 주민과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태안읍 공영주차장 2개소를 23일 준공해 태안읍 주차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23일 태안읍 구터미널(남문리) 공영주차장에서 한상기 군수와 군 관계자, 이용희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이장단,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군이 준공한 신규 공영주차장 2개소는 구터미널(남문리) 주차장과 동문리 주차장으로, 해당 지역은 과거 내대지의 임시 주차장과 자동차 정비업체 부지로 쓰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12월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주차장 조성에 돌입, 태안읍 남문리 573-1(3590㎡)에 총 116면, 동문리 481-1(2831㎡)에 총 90면의 공영주차장을 각각 건립키로 하고 총 64억 원을 들여 지난 9월 착공에 들어가기달 조동문 공영주차장을 준공하고 남문 공영주차장 건립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특히, 당초 유료화 계획을 부류하고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키로 해 주민 만족도를 높였으며, CCTV와 가로등을 설치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남문리 주차장의 경우 입·출구를 당초 2곳에서 3곳으로 늘리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다. 군은 이번 신규 공영주차장 준공으로 재래시장 및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돼 주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공식에 참석한 한상기 군수는 "군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선진교통 인프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주차장 추가 건립을 논의하고 기존 주차장의 철저한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살기 좋은 태안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성과보고회·프로그램 간담회 열려

온양5동, 문제점·이에 대한개선책 마련하는 계기

아산시 온양5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윤인회) 주관으로 지난 22일, 온양온천역 까르르스타 연회장에서 2016년 온양5동 주민자치성과보고회 및 프로그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온양5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시·도의원, 통장협의회 각 기관·단체장 및 총무, 프로그램강사, 수강생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주민자치성과보고회는 온양5동 주민자치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주민자치위원 및 프로그램 강사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2016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주요 추진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7년도 운영계획 등을 보고하는 한편 동영상도 시청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강사와 수강생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져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올 한해 온양5동 주민자치위원회는 8회에 걸친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능력이 향상되었고, 나눔 활동을 위한 단호박을 재배하고 수확하여 사회취약계층 13가구에 맞춤형 가전제품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봉사 및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주민들이 적극 호응하는 주민자치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개강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서천군 군민평가단 정기회의 열려

2016년 활동 결과 · 2017년 활동 계획 논의... 제2기 군민평가단 정원 확대



부여군 백제대중서 타종행사 열어

불꽃놀이 등 저물어가는 2016년 마감하는 행사 진행

부여군 개군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백제대중'이 2016년을 마감하는 12월 31일, 군민들과 함께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며 울려 퍼진다.

지난 9월 백제문화제 전야제에서 처음 타종행사를 가졌던 부여군은 군민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만들어진 백제대중을 군민에게 다시 되돌려주고자 이번 타종행사를 계획했다.

오는 31일 8시30분부터 풍물판굿, 백제미마지 탈춤, 창작작품 '운곡', 통기타 연주, 난타·에어로빅·쑈바댄스, 전자바이올린 연주 등 식전행사가 열린다.

지역공연단체와 부여군 홍보대사 박은주, 충남국악단, 부여풍물단 등이 적극 참여하여 군민들과 한데 어우러진 공연을 펼친다.

11시 40분에는 1개조 6명으로 이루어진 6개조 36명이 군민 모두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밝아오는 새해를 여는 33회 종을 치는 타종행사가 진행된다.

이어 이용우 군수와 이경영 의장이 2017년 정유년을 맞아 군민들에게 전하는 신년인사와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부여=이정복기자

서면 봉하마을 효 작은음악회 열려

서천군 서면 봉하마을은 지난 21일 기관단체장,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 작은음악회를 가졌다.

이번 음악회는 최근 봉하마을로 귀촌한 악기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뜻을 모았으며, 마을총회시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주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다.

이행수 이장(봉하마을)은 "작은음악회가 우리마을의 큰 영광이며 향후 언제 어디서나 불러만 주시면 달려갈 것"이라며 자랑스러워 하였다.

정해순 서면장은 "봉하마을 효 작은음악회가 귀촌인들의 모델이 되어 주민정신건강에 큰 활력이 될 것이며, 행복한 면민 희망찬 서면을 위해 행정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하였다.

서천=김태성기자



임사 3리 경로당 준공식 가져

계룡시, 어르신들 휴식장소 · 문화 공간으로 활용

계룡시(시장 최홍욱)는 지난 21일 최홍욱 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 및 마을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사 3리 경로당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을 갖은 임사 3리 경로당은 건축면적 94㎡ 규모의 건축물로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임사 3리는 건물 노후 및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힘들고 편안한 쉼터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경로당 설치에 대한 주민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마을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억 2천여 만원을 투자해 올해 5월 사업을 착공하여 최근 완공했다.

이번 경로당 준공으로 마을 주민들은 넓고 깨끗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인력한 휴식장소 제공은 물론 마을 회의 및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등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경로당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천군 군민평가단(단장 한선교)은 2016년을 마무리하는 정기회의를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군민평가단의 2016년 활동실적을 돌아보고 2017년 활동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제1기 군민평가단은 지난해 7월 구성된 이래, 금년 3차례에 걸쳐 11개 읍면 19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상·하반기 서천군 보조금 지원사업 28건에 대한 성과평가 시행, 2016년 서천군을 빛낸 10대 사업 등을 선정하였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 2017년 시책구상 보고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현장평가 결과를 서천군 자체 평가에 5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부서장 직무성

과 평가에 7점 반영하는 등 상호 연계 기능을 활성화하여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에 앞장섰다.

서천=김태성기자

논산시 청소년들 스트레스 한방에

논산시 '2016 청소년 송년콘서트' 뜨거운 열기 속 성료

논산시 청소년들의 열정과 함성, 뜨거운 젊음이 겨울날의 추위를 통째로 녹였다.

논산시시장 황명선과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 주최로 지난 22일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열린 '2016 청소년 송년콘서트'가 청소년이 행복한 지자체임을 입증하며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수능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의 노고 격려와 관내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올해도 육군훈련소(소장 구재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논산시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8,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소했다.

이날 공연은 인기가이돌 그룹 방

탄소년단과 인기 걸그룹 EXID, 걸 크러시 래퍼 치타와 실력과 남성듀오 율트(이현·이창민) 등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아이돌그룹과 인기래퍼가 출연해 청소년들과 함께 뛰고 박수치며 열정과 함성으로 육군훈련소 연무관을 뜨겁게 달궜다.

아울러 청소년동아리의 상큼한 공연도 함께 해 그동안 갖고 뒤은 끼와 재능을 맘껏 펼치며, 공연장을 가득 메운 청소년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번 공연은 지난 6월 개최한 '청소년 타운홀미팅'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방탄소년단의 공연으로 기획돼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공연을 보며 행복해지는 모습



습을 보니 뿌듯하다"며, "이번 콘서트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여건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했다. 공연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감성 함양은 물론 그들이 내년의 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공감과 소통의 장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이길구기자

부여 세계유산 나성서 삼국시대 최대 규모 '치' 발견

28일 발굴조사 현장 일반인에게 공개



부여(군수 이용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동나성) 4차 발굴조사에서 잔존 상태가 양호한 백제시대 성벽과 치를 확인하여 오는 28일(수) 발굴조사 현장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치의 규모는 길이 22.4m, 너비 5.1m, 높이 7m로 현존하는 삼국시대 치 중 최대 규모이다. (치: 성벽의 바깥으로 덧붙여 쌓은 벽, 적이 접근하는 것을 일찍 관측하고 싸울 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시설)

부여 나성은 백제의 수도 사비를 방어하기 위해 사비 천도 전후에 쌓은 중요한 외곽 방어시설로 동아시아에서 새롭게 출현한 외곽성의 가장 이른 사례 중 하나이며, 한반도에서는 최초로 축조된 외곽성이

다. 부여 나성 중 동나성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는 이번 2016년 조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그동안 길이 약 850m 정도의 성벽 노출과 함께 문지, 치, 각자성석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물은 백제시대 수막새편, 인각와, 대호편, 철제 무기류(철촉, 철준, 마름쇠), 문지공석 등이 출토되었다.

(각자성석: 글자를 새긴 성돌로 유적 내에서는 「扶土」, 「弓土」, 「白虎口虎」, 「銘」 각자성석을 2013년에 확인함)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산성 중 가장 큰 규모의 치를 확인한 가운데 출현된 기저부보강시설을 통해 치의 증축 양상이 확인됨에 따라 부여 나성이 처음 축조된 이후 대대적인 증축 및 개축이 이루어진 것도 알 수 있다.

부여=이정복기자

천안시농기센터 정순우 팀장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대상'

한국형 치즈 · 개발 성공 등 공로 인정받아



정순우(49세)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팀장이 전국 농촌지도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인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농촌진흥청은 22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 종합연관관에서 2016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시상식을 갖고 전국의 지방농촌지도 공무원 10명에게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7명)을 시상했다.

정 팀장의 주요 공적을 보면 국내 최초 축산 미생물 배양센터를 설치 운영한 것과 국내 최초 목장형유가공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한국형 치즈 · 개발에 성공하여 전국 유가공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낙농분야 HACCP인증농가를 배출하고 국내 신기술 시범사업을 제안하여 경영비 절감에 공헌하는 등 선진 축산기술보급으로 탁월한 성과를 도출해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천안=김정환기자

동정

행복한마을만들기대회



구본영 천안시장은 26일 오후 2시 한들문화센터에서 개최되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대회'에 참석.

균형발전사업 최종보고회



노박래 서천군수는 26일 오전 8시 30분 상황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11시 30분 한산면사무소에서 열리는 한산사랑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며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열리는 서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사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며 이어 4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제3기 균형발전사업 최종보고회에 참석.

건강재활센터 준공식



이용우 부여군수는 26일 오후 3시 보건소 앞마당에서 열리는 부여군건강재활센터 준공식에 참석.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협약식 · 간담회

계룡시보건소, 다양한 발전방안 논의

계룡시 보건소(소장 임재희)는 지난 21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계룡시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임재희 소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김재숙 교육과장을 비롯한 관내 10개 초·중·고등학교교장과 보건교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으로 두 기관은 내년도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인적, 물적, 행정적 지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 건강한 청소년 성장 발달을 위해 교사들에 대한 보건교육, 응급진료와 질병예방 상담 등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를 통해 건강증진 사업의 소통과 교류, 협조체계 구축방안과 내년 사업의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가졌다.

임재희 소장은 "10개 학교장의 학생들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에 관심이 매우 높아 이번 협약식과 간담회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건강증진 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계룡시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6 대동빌딩 7층

통정

1월 중 업무보고회의의 주제



오시덕 공주시장= 26일 오전 8시 40분 대회의실에서 2017년 1월 중 업무보고회의를 주재, 오후 5시 부여군에서 열리는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이사회에 참석.

월간현안보고



김동일 보령시장= 26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월간현안보고 참석.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강사 위촉



이완섭 서산시장은 26일 오전 10시 40분 시장실에서 개최되는 서산미용인 모임 '월' 회원 정기기탁식에 참석, 오전 11시 30분 서산시청 상황실에서 2017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강사를 위촉, 오후 2시 시청실에서 개최되는 대한불교조계종 서산시주지협의회 쌀 기탁식에 참석, 오후 5시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서산발전협의회에 참석.

금산문화원 샅꽃문화행사



박동철 금산군수는 26일 다락원서 열리는 금산문화원 샅꽃문화행사에 참석.

보령교육 성과보고회



조인형 보령교육장은 26일 오전 9시 30분 보령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2016 보령교육 성과보고회 및 관리자 성과교육 참석.

서산시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당부

21일 서산시는 재난취약시설의 의무보험을 내년 1월 8일 이후부터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백화점, 병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이외의 재난취약시설도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됐다.

가입대상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회회의시설 ▲전시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의매장 ▲경마장 ▲장의발매소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등 19개 시설이다.

이들 시설이 가입해야 할 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해 대인배상은 1인 당 최대 1억 5,000만원, 대물배상은 한 건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액은 시설별로 100㎡를 기준으로 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보험 상품 명칭과 보험료 등은 국민안전처와 10개 보험사가 협의 중이다.

신규 시설은 인허가를 득한 후 30일 이내에 보험증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존 시설은 내년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본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시설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관련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서산시, 2016년 10대 성과사업 선정

市 정체성 · 미래비전 효과적 제시

23일 서산시가 2016년을 빛낸 10대 성과사업을 발표했다.

10대 성과는 ▲서산-대전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해뜨는 서산통합브랜드 선포 ▲통합형 현대화 보건소 신축 이전 완료 ▲2016년도 기업유치 목표 200% 초과 달성 ▲서산대산항 국제여객선 선종변경으로 2017년 취항 확정 등이 선정됐다.

그리고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구축 ▲잡종저수지 수변공간 조성사업 준공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충남 최초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국가계획 반영 협력 추진 ▲지방세징 종합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이 포함됐다.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돼 최종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은 서해안항만과 내륙연결 교통망 구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서산 대산항이 대중국 무역 및 관광의 전초기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의 최대 성과로 꼽혔다.

해뜨는 서산 통합브랜드를 선포해 역동적이고 밝은 도시이미지를 형성했으며 시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효과적으로 제시해 시의 전략적 마케팅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화 보건소 신축이전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보건



사업을 제공하고 공공의료 접근성을 개선해 시민 만족도를 상승시킨 점도 포함됐다.

올해 목표대비 210%인 42개 기업을 유치해 3,087억의 투자와 622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낸 집과 서산대산항 국제여객선의 선종변경으로 내년 상반기 서산-용인항간 국제여객선의 취항이 확정돼 국제물류허브항으로 도약하게 된 것도 높이 평가됐다.

잡종저수지 수변공간 조성사업의 준공으로 저수지 주변을 시민친화수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여성친화도시의 선정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 했으며 저주재원 확충 및 공정한 지방세징 구현 성과로 지방세징 종합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점도 포함됐다.

시는 각 부서에서 올해동안 추진한 역점시책 40개를 시민평가단, 직원 내부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인재 ▲해미면에 받았다.

이을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평가에서는 최우수에 ▲부석보건지소 ▲원평보건진료소, 우수에 ▲음암보건지소 ▲호리보건진료소가, 장려에 ▲인진보건지소 ▲운산보건지소 ▲산성보건진료소가 선정됐다.

서산=김정환기자

보령 보건소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 시행 협약 체결

보령시 보건소와 아산시회복지재단 보령아산병원은 지난 20일 보건소에서 김형곤 보건소장, 정종기 보령아산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주민 건강검진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주요?주포?오천?천북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4년간 보령발전본부에서 진행해왔던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보령시 보건소로 이관해 시행한다.

이번 협약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보령아산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편의 병원 수검을 원하는 주민에게는 개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내년도 검진 대상은 만60세에서 69세에 해당되는 주민 중 출생년도 대상자인 1485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고,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보령 아산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경우 종합검진 패키지 혹은 부위별 MRI형 건강검진 중 선택 할 수 있고, 편의 병원 수검을 원할 경우의료기관 및 항목을 선택하여 수검한 후 보령시 보건소로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령=김태성기자

'민원Coll-Be제' 위원 위촉식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불만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존 민원행정모니터제도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민원Coll-Be제'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주시 민원Coll-Be제 위원 위촉식을 열고 공주시를 비롯한 행정자치부, 농협, KT 등 기관 퇴직자로 구성된 22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전달과 함께 민원Coll-Be제 제도 설명 및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위원의 활동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시덕 시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지극히 주민들의 대화를 통해 시민여론을 수렴해 공주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민원Coll-Be제는 시민의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 사소한 민원까지 사전에 폭넓게 모니터링 해 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시행한 민원행정모니터제도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기존에는 행정 경험 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됐으나 현재는 기존 위원을 비롯한 타기관 퇴직자 및 읍면지역 위원을 추가 위촉해 민원수령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공주시 시민봉사과 통합민원팀 조수진 팀장은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우리/동네

공주시, 역대 부시장과의 간담회 개최

“소통-화합의 시정 기대”

오시덕 공주시장은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역대 부시장들의 경험을 나누고 시정발전을 위한 제언을 듣기 위한 '역대 부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956년 통합시 출범 이후 봉직한 10명의 부시장 중 6명과 시 간부 등 12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공주의 역사 속에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주신 부시장님들의 노고가 깃들여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부시장으로 재임 당시 꼭 하고 싶었던 일,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느낀 점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공주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주시에서 근무했던 것일 보람 있고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련해 준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역대 부시장들은 공직자의 역량 강화 방안, 공산성 주변 주차 문제, 호텔 유치로 통한 머무르는 관광지 조성, 세계유산도시에 맞는 장기적인 정비 계획 마련 등 시정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오늘 부시장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앞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주의 발전은 역대 부시장님들께서 씨앗을 잘 뿌리고 가꾼 덕분으로 앞으로도 공주시를 내 고향처럼 생각하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역대 부시장과의 간담회는 참유익한 것 같다.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통해 시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상 공주시를 성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인삼약초산업 지속발전 성장점 마련

가족통합지원센터 · 종합체육관준공 등 진전

2016년 금산군정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군민여량이 발휘되면서 지속발전의 보폭을 넓혔다는 평가다.

제36회 금산인삼축제 성공개최,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종합체육관 준공, 가족통합지원센터 개관 등 미래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역점사업의 마무리로 희망을 키워냈다.

더욱 공고해진 인삼중추지 위상을 바탕으로 금산인삼축제 글로벌발, 세계 인삼시장의 경쟁력 제고, 문화 콘텐츠 확보 등 기대가 더욱 확장됐다.

특히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의 밑거름과 금산인삼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도전은 발전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군은 그동안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FAO의 등재기준을 충족 할 수 있도록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 발굴과 체계적인 정리, 지역주민의 인식확산, 등재기준 항목별조사연구를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해왔다.

지난 6월에는 국내 농업유산학회 관계자 및 일본과 중국의 지명된 세계중요농업유산 권위자를 초청한 '제3회 동북아 농업유산위원회 국제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세계적인 관심을 이끌었다.

현재 세계중요농업유산 위원회사무국에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로 내년 상반기 중에 등재가 결정될 전망이다. 금산인삼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10월말 현재 1574만불(산입통상자원부 통계)의 수출 실적을 거뒀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최대수요국인 중국의 선물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이뤄낸 성과여서 만족감은 크다.

다년간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등을 타겟으로 해외 마케팅 사업(10개국 51개소 금홍매장 개설)을 전개해 온 노력이 결실로 이어졌다.

농업분야의 금산·추부곶이 고공행진은 놀라웠다. 5년 연속 400억원대 매출실적에 이어 12월 20일 현재 매출 4739억원을 기록, 5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다.

2015년 금산·추부곶이특구 지정의 활력을 연매출로 승화시키며 금산곶이산업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농촌분야에서는 군북면 외부리의 금산군귀농교육센터가 주목받았다. 금산군귀농교육센터에 입교한 희망 귀농인들의 지역내 정착율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입교해 귀농교육센터에서 1년간 교육을 마친 입교민 13세대 중 11세대가 딸기, 표고, 들깨잎 등을 재배하며 금산에 정착했다.

제36회 금산인삼축제는 96만5000여명의 방문객을 동원하며 막을 내렸다. 산업형문화관광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663억 원에 달하는 인삼약초 매출도 기록했다. 역대 최고의 성적이다.

전국 유명축제와 겹쳐진 일정, 추석명절 뒤의 개최시기, 가을철 불안정한 기상여건 등 방문객이 저조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깨고 금산인삼축제는 올해에도 성공가도를 달랐다.

학교교육경비지출(28개교, 16억원), 해외어학연수, 진 환경 무상급식, 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 등 금산 인재육성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금산=전정민기자



보령시, 민·관 공동추진 컨소시엄 협약 체결

수산중요배양장 효율적 운영

보령시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이덕섭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장, 최요한 보령수협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중요배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관 공동추진 컨소시엄 협약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3개 기관이 수산중요배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각 기관별 역할 및 비용분담 등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협약은 온배수를 이용한 양

식장을 전면 개선해 건설한 수산중요배양장에 대해 보령시는 수산업 발전, 보령발전본부는 78호기 건설 이행각서 및 환경협정서의 이행, 보령수협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협정서의 이행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여측 자원 보호 및 확충을 위한 협업으로 수산중요배양 방류사업의 사업 효율화 및 경제효과 달성을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에서 건설한 수산중요배양장에 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 운영은 보령수협에서 하고, 배양장 운영에 관한 경비는 보령시가 1억 원, 보령발전본부 3억 원, 보령수협 3억 원 등 모두 7억원을 3개 기관이 공동분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3개 기관의 전문 행정, 기술력을 합쳐 여측자원 다양화와 수산자원 확충의 빠른 시너지 효과를 나타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기 좋은 부자어촌, 모두가 행복한 바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성기자

공주시,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매년 자율점검업소수 20% 선정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26일부터 30일까지 환경오염배출시설 중 자율점검업소 사업장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지정업소란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중에서 2년간 행정처분이 없어 우수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의 세부 지정기준에 지정 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기지도·점검에 대한 면제를 받는 특혜가 있지만, 매년 자율점검업소수의 20%를 선정해 자율점검 이행부 확인 등을 위한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 언제나 봄날 (MBC 오전 7시50분)



면식(선우재덕)은 대평(김상경)의 장례식장에 온 한길(최상훈)을 발견하고 주먹질을 한다. 가족들은 처음 본 면식의 모습에 놀라며 이를 말리고 준하(이해준)는 현준(박정숙)에게 정보를 알려 복수를 위해 다시 고군분투한다. 한편, 덕상이(정갑은)는 늦은 밤에 자신을 찾아온 직원이 의문스러우는데...

▲ 아이소리 강남구 (SBS 오전 8시20분)

훈터에 대해 캐논은 태진과 일족축발의 기싸움을 벌인 도훈은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어 다시 태진을 찾고, 정직원이 된 모아가 거슬리

는 명숙은 모아에게 또 다시 돈을 건넨다. 한편, 태진은 남몰래 도훈을 뒷조사하고, 이를 알게 된 명숙이 태진을 다그치는데...

▲ 저 하늘에 태양이 (KBS2 오전 9시00분)



인경(윤아정은)은 우진(지윤재)을 보며 정호(민우)를 떠올리고, 민우(노영학)는 영화제 수상을 발판삼아 대표직에 올라선 야망을 키운다. 말쑥한 복인은 정호를 그리워하는 인경을 보며, 금순한 지안에게 정호와 갑자기 헤어진 이유를 묻는다. 한편, 인경은 촬영장에서 자신을 향한 우진의 돌발행동에 당황하는데...

케이블 영화

▲ 성난 변호사 (OCN 오후 1시50분)

두뇌 상위 1%, 승소확률 100%의 에이스 변호사 '변호성'(이선균). 대형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승승장구하는 그에게 새로운 의뢰가 들어온다. 바로 시체도 증거도 없는 신혼여대생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변호하는 것!

좁혀뿔 풀리지 않는 사건이지만 그의 두뇌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파트너 '박사무장'(임원희)과 함께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의 혐의를 벗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주인공은 나다"

재판 당일, 사사건건 부딪히는 후배 검사 '진선민'(김고은)의 반론에 맞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변. 언제나 그렇듯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 용의자가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자백한다.

갑작스런 자백에 판사는 뒤바뀌고, 변변은 승소를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함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승소를 확신한 순간, 시작된 반전. 자존심 구긴 에이스 변호사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된다!



▲ 박수건달 (채널CGV 오전 11시00분)

<테이큰>은 파리로 여행을 떠난 딸이 납치당한 후 아무런 이유도,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전직 특수요원 출신 아버지가 벌이는 프로페셔널한 추격전을 그린 영화. 전직 특수요원의 프로페셔널한 추적이 시작된다!

파리로 여행을 떠난 딸 김매기(그레이스) 분이 아버지 브라이언(리암 니슨) 분과 통화를 하던 중 납치 당한다. 아무런 이유도 단서도 없다. /미행 - 김의 부서진 휴대전화에서 피터의 사진을 발견한 브라이언은 그를 미행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얻으려던 순간 피터는 죽고 만다. /도청. 유력한 조직원의 옷에 물레 고정장치를 숨겨 넣는데 성공한 브라이언은 조직의 또 다른 근거지에 납치당한 여성들이 갇혀 있음을 알게 된다. /구출. 김이 입고 있던 재킷을 가진 여자를 차에 태우고 거침없이 달리는 브라이언의 뒤를 수십 대의 차들이 뒤쫓고, 목숨을 건 사상 초유의 추격전이 벌어진다. /잠입. 김이 납치당하던 순간 휴대전화를 향해 소리쳤던 의모를 그대로 지닌 '놈'. 브라이언은 특수요원 시절 익힌 잔혹한 기술을 동원해 결정적 단서를 얻고, 일생일대의 사투를 시작하는데...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독일 총기생산업체, 서산시 사격팀에 총기 기증



23일 서산시는 독일 총기생산업체인 발터사가 시정 사격팀에 총기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지난 7월 개최된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발터사가 시정 사격팀 경기를 주관 후 총기, 지원,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무료한 겨울방학! 계절 학교로 알차게 보냈어요.

대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정호)은 내년 1월2일~12일 2주간에 걸쳐 장애아동·청소년·성인 총 21명을 대상으로 총 10회기에 걸쳐 겨울 계절학교를 진행한다. 이번 겨울계절학교는 학생들의 대상으로 학교 방학기간을 무료로 보내지 않고 능동적 소질 및 잠재력 발굴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아산시립도서관, 겨울방학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총9개 독서문화프로그램 개설... 640명의 어린이 대상 운영

Table listing various winter holiday programs for children, including reading, drawing, and music activities.

아산시립도서관 관장 권경자(은)는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방학특강 프로그램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독서교실]과 아산시립도서관의 자체 개발 프로그램인 [I LOVE 도서관]으로 총9개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개설, 64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램을 개설 및 운영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 그림책으로 다양한 놀이방법을 제시하고 그림책을 이해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권경자 관장은 "평소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방학 기간, 오월드(썰매), 베이킹교실 등 진흥, 미지막으로 성인계절학교에서는 여가활동 위주의 불링, 포켓볼, 보드게임 등 다양화 된 프로그램들이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게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29일(목) 09시, 아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dvertisement for a phone number: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충남병무청, 가족·친구와 함께하는 뮤지컬 나들이

케이블 & 위성방송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and their program schedules.



이준식 교육부장관, 대전 해광학교 방문 대전시교육청은 23일 오후 2시30분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대전해광학교를 방문하여 특수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과 학교기업 운영을 살펴보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전대학교 '사랑의 물레 산타 대작전' 행사 25일 대전대학교(총장 임용철)에 따르면 지난 24일30대 청춘예찬 총학생회(회장 송석찬, 건설안전방재공학과11학번, 25세)가 대전 동구지역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물레 산타 대작전'을 실시하였다.



유성구 원신흥동 우쿨렐레 연주단 주민센터서 연말공연 유성구 원신흥동(동장 백준흠) 평생학습강좌 우쿨렐레 연주단이 23일 원신흥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홍성 갈산면 '사랑의 쌀 나누기' 이웃사랑 실천 갈산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조병욱씨는 지난 21일 갈산면사무소를 방문해 동절기 마을 경로당에 모여 식사를 해결하는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달라며 시가 260만원 상당의 쌀 1,280kg을 기탁했다.



삼성전기 세종사업장, 적십자 이웃돕기 성금 전달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은 지난 23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회장 정상철)를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에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청양군 생활개선회, 연말총회 가져 생활개선회청양군연합회(회장 한영숙)는 지난 22일 청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연말총회 및 과제교육을 실시했다.

건양사이버대-SBS A&T 뷰티스쿨 - MBC 아카데미뷰티스쿨 K-뷰티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 위해 MOU

건양사이버대학교(총장 김희수)가 K-뷰티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SBS A&T 뷰티스쿨, MBC 아카데미 뷰티스쿨 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미용뷰티 교육기관이 서로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류하며 경쟁력 향상 및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협약식은 지난 20일 각 뷰티스쿨 로비에서 진행됐다.

대학 김경숙 글로벌뷰티학과



장은 "K-뷰티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을 강화해 미래 성장산업의 축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또 선도기업과 다양한 협업, 기술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중견기

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뷰티학과는 2016년 올해 '제9회 대전광역시장배미용경기대회', '2016 제 4회 월드뷰티페스티벌', '2016 OMC KOREA 무궁화경 대회', '2016년 대전시 기능경기대회' 등 유수의 미용 대회에서 다수의 입상자를 배출하며 미용뷰티 관련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

오고 있다. 이정복기자



아산시 신창면 새마을남·여협의회

연말연시 맞아 어려운 이웃에 성금전달

아산시 신창면 새마을남·여협의회(회장 박희성, 부회장 박연욱)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보탬이 되어달라고 2백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신창 새마을협의회는 1년 동안 싹길 기구기와 미역판매 행사 등으로 마련한 자금과 회원들간 서로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한해동안 활동한 보람이 결실을 맺어 성금을 기탁하니 웬지 올해 할 일을 제때

아산=리향주기자

로 했다는 뿌듯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도 봉사단체로서 우리지역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식 신창면장은 "늘 바쁜 시간을 쪼개서 복지를 위해 봉사를 해주시는 남·여 새마을협의회에 대해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산=리향주기자



롯데백화점 대전점, 한민시장 '시네마데이'

한민시장 상인과 상인가족 220여명 초청 시네마데이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강재욱)은 지난 22일 오후 8시 서구 괴정동 한민시장 상인과 가족 220여명을 롯데백화점 10층 롯데시네마로 초청, '한민시장 시네마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롯데백화점이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통과 상생을 위한 자리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 최근

개봉한 영화 '판도라'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지난 1일에는 전통시장 동절기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매장 비치용 소화기를 증정하고, 상인분과 함께 '김장김치 나눔활동'을 진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함께 상생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공주시, 23일부터 29일까지 고마 전시관에서 개최

시(詩)·서(書)·화(畵)·사(寫) 송년초대전



공주시(시장 오시탁)가 한국예총 공주시회와 공동으로 올 한해 공모·전시된 작품을 한데 모아 오는 29일까지 고마 전시관에서 '2016 공주시 시(詩)·서(書)·화(畵)·사(寫) 송년특별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올 한해 공주시 공모로 공모·전시됐던 시화, 서예, 그림, 사진 등 54점의 시각예술작품을 한데 모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으며, 고마 2층 전시관에 전시된다.

특히, 공주 미술, 사진, 문인협회 등 공주예총 회원협회와 바탕W, 금강문화포럼, 백제서화협회, 공주시우회, 한국화전통미술계 추진위원

회가 참여해 이번 초대전의 품격을 한껏 높였다.

오시탁 시장은 23일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 예술의 품격을 한층 돋보이게 만든 주역은 문화예술의 선도자인 지역 문화예술인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좋은 공모전이나 전시회가 일회성 행사로 인식되는 것이 안타까워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이자 시민과 분야를 넘어 화합의 장이 되길 바라며, 지역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동구 기양1동 재난안전 자율방재단, 소외계층 사랑의 이불나누기 행사 지난 23일 성탄절을 앞두고 소외계층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기양1동 주민센터를 찾아 이불 10셋트를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있다.



결성면, 귀농·귀촌인과 화합의 장 마련 흥성군 결성면 복지회관에서 지난 21일 결성면(면장 안기억) 주관 결성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고중섭) 주최로 결성면 귀농·귀촌인 화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위문품 전달

전국재해구호협회(협회장 최학래)는 지난 23일 청양군 운곡면의 명모씨 가정에 5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전달했다.

협회는 지난 2월 청양군내 저소득 가정에 대한 장판교체와 도배 등의 집수리 봉사를 하면서 맺은 인연으로 명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회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가전제품을 구매해 전달하게 됐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재해구호단체로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면서 청양군과 소중한 인연을 맺어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 도움을 받게 된 명씨는 "지난해 집수리도 무척 고마웠는데 아이들에게 컴퓨터 등 교육을 위한 전자제품을 보내 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도움을 주신 손길에 보답해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정성범기자

건양대-KICA-캠보디아 안보건의로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정 출범식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는 2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이하 NPIC)과 함께 '안보건의로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정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NPIC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 행사에는 캄보디아 픽소폰 노동부 차관, 본 피어린 NPIC 총장,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정운길 사무소장, 건양대 정영길 행정부총장, 정주원 안경광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에 이어 NPIC 내 실습실 환경을 점검하는 한편 안보건의로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입학하는 신입학생 면담 및 오리엔테이션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와 학생들 간에는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관련한 수업진행방안 및 향후 진로, 한국 건양대의 파견수업 진행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건양대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캠보디아 안보건의료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립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정복기자

인사

■ 대전시교육청

- ◇ 3급 승진 ▲ 기획조정관 김영섭 ▲ 행정국장 조은상 ▲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 ◇ 3급 공로연수 ▲ 기획조정관 류재철 ▲ 행정국장 김용선 ▲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 ◇ 3급 정년퇴직 ▲ 대전평생학습관 임철 ▲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원주향

■ 충남도교육청

- ◇ 3급 정년퇴직 ▲ 이성우·김원호
- ◇ 3급 공로연수 ▲ 김종성
- ◇ 3급 전보 ▲ 평생교육원장 조용호
- ◇ 4급 정년퇴직 ▲ 이명실·김재후·김대식·양승조
- ◇ 4급 명예퇴직 ▲ 김현환

※ 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인사 본보 홈페이지 참조.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북부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www.sci.ac.kr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겠다. 순천향.

산학일체형 미래선도대학
순천향 임프레프레너대학 실현
사회공헌형 창의인재 양성

국내 최초로 의료법인이 설립한
고등교육기관인 순천향대학교는
글로벌 '연간사랑'의 구현을 위해
40여년간 합업이 달려왔습니다.

2017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 **접수기간** : 2016년 12월 31일(토) ~ 2017년 1월 4일(수)
▶ **문의처** : 입학팀 041-530-4745, 입학사정관실 041-530-4750
<http://gsi.sch.ac.kr>



순천향대학교
SUNGSHAN UNIVERSITY